

역사신학적 관점에서 본 기독교와 이슬람

- 초기 압바스 시대 기독교인의 대응을 중심으로

서원모 *

I. 서론

II. 역사적 조건

1. 쿠란의 기독교 이해
2. 담미 제도
3. 칼리파의 이슬람화 정책
4. 이슬람 학문의 발전

III. 기독교의 대응(1)--그리스어와 시리아어 문헌

1. 이슬람 세계 안의 기독교 분파와 아랍 기독교의 발전
2. 아랍족 침입과 이슬람 신앙에 대한 기록
3. 목시문학
4. 변증서와 신학 교본

IV. 기독교의 대응(2)--아랍 기독교와 신학의 발전

1. 복음서 번역
2. 아랍어 변증서
3. 번역 운동과 철학적 대화

V. 나가는 말-역사 신학적 통찰

* 장로회신학대학교 역사신학 교수

ABSTRACT

Christianity and Islam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Theology

- With Focus on Christian Responses to Islam during the Early Abbasid Period

Wonmo Suh

This study is designed to give an historical overview of Christian responses to Islam during the early Abbasid period. It first seeks to describe historical conditions of Christians under the Islamic rule: the Qurān's critique of Christianity, Dhimmitude, the assertion of Islamic identity in public areas and policies of promotion to conversion to Islam initiated by the caliph Abd-al-Malik and his successors, and development of Islamic knowledge. Its second task is to examine how Christians responded to religious and social challenges of Islam, production of apocalyptic apologetic works, translation of the Bible into Arabic, the foundation of Arabic theology, participation in translation of Greek books into Arabic, and development of Arabic philosophy.

My aim is to demonstrate that in the Islamic world during the early Abbasid period, Christians and Muslims influenced and interacted with each other and engaged in religious controversies and dialogues on a rational basis at both doctrinal and practical levels. Christians, although subject to discrimination, disability, and sometimes even persecution, participated in the creation of classical Islamic civilization by their contribution to the translation movement and the advancement of philosophy in Baghdad. This historical heritage is in sharp contrast with the Christians who lived outside the world of Islam, never taking part in real conversation with Muslims and never communicating in a meaningful way with Islamic culture. Knowledge of

this heritage itself will change our attitude toward Christian relations to Muslims, significantly contributing to establishment of constructive dialogues and cooperation toward peace, justice, and integration of creation in the world.

I. 서론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관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차원을 가지고 있으며 종교와 문명교류 뿐만 아니라 인류의 공존과 평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주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무슬림 노동자가 유입되어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하고 있고, 2011년에는 수쿠브 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¹ 하지만 한국 사회, 특히 한국 교회의 이슬람에 대한 인식은 너무나도 일천하다. 본고는 기독교와 이슬람의 관계를 보다 객관적으로 고찰하고, 기독교와 이슬람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역사인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의 성격상 사료에 대한 엄밀한 분석보다는 이슬람과 기독교의 만남과 교류의 역사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제시해줄 수 있는 한 주제를 개관하고, 그 의미를 고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이슬람 세계 안의 기독교와 이슬람의 관계, 특히 초기 압바스 시대의 이슬람에 대한 기독교인의 대응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는 이 주제가 국내에서는 거의 소개되지 않고, 세계 학계에서도 연구가 미진한 분야이기도 하지만, 이슬람과 기독교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새로운 통찰을 제시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다.² 비잔티움 제국³이나 중세 라틴 세계⁴와는 달리 이슬람 문명권 안에서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세 유일신 종교 간의 종교적인 대화와 논쟁, 학문적인 협력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오늘날 이슬람과 기독교의 관계를 생각할 때, 이러한 대화와 협력과 공존의 역사가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다.

1. 이블테면 한반도평화연구원은 2011년 4월 13일에 청어람 소강당에서 "수쿠브 법의 쟁점: 평화를 위한 정부, 미디어, 교회의 역할"라는 주제로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2. 이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서로 Sidney H. Griffith, *The Church in the Shadow of the Mosque: Christians and Muslims in the World of Isla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8)가 있다.

3. 비잔티움 제국의 이슬람과 기독교의 관계에 대한 개관적인 연구로는 John Meyendorff, "Byzantine Views of Islam", *Dumbarton Oaks Papers* 18 (1964), 115-132이 있다.

4. 중세 라틴 세계의 기독교와 이슬람의 관계에 대해서 고전적인 연구로는 R. W. Southern, *Western Views of Islam in the Middle Ages*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1962)이 있고, 십자군과 무슬림 선교와 관련되어서는 Benjamin Z. Kedar, *Crusade and Mission: European Approaches toward the Muslim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이 있다.

본고는 압바스 시대 초기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일어난 기독교와 이슬람의 만남과 교류의 역사를 개관하고자 한다. 750년 압바스 혁명 이후, 이슬람 세계는 새로운 학문의 등장, 그리스 서적의 번역, 이슬람 철학의 발전 등 학문과 문화가 개화되어 이슬람 고전 문명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를 변증하고 교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아랍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신학을 전개하고 그리스 서적의 번역과 철학의 부흥에도 참여하면서 문화 발전에 기여했다. 본고는 압바스 시대 초기의 이슬람에 대한 기독교인의 문헌적이고 신학적인 대응에 초점을 둘 것이며, 무슬림의 기독교에 대한 대응과 비판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먼저 이슬람 세계 안에서의 기독교와 이슬람의 만남과 교류의 역사적 조건을 다룰 것이다. 여기에는 꾸란의 기독교에 대한 이해, 담미 제도, 칼리파의 이슬람 장려 정책, 이슬람 지식의 발전 등이 논의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먼저 이슬람 세계 안의 기독교 여러 정파를 아랍어 신학의 발전과 함께 개관하고, 이어서 아랍족의 정복과 신앙에 대한 보도에서 시작하여 묵시문학, 변증서와 신학 교본, 아랍어 신학의 발전, 번역운동과 철학 등의 내용을 대표적인 인물과 문헌의 특징을 중심으로 개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이슬람 세계 안에서의 기독교와 이슬람의 만남과 교류가 지니는 역사신학적 통찰을 고찰할 것이다.

II. 역사적 조건

이슬람 세계 안에서의 이슬람에 대한 기독교의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슬람과의 만남과 교류가 일어나는 역사적 조건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고는 우선 무슬림의 신앙과 행동의 원천이 되는 꾸란의 기독교 이해, 무슬림 정복 지역에서의 기독교인의 삶의 조건인 담미 제도를 다루고 그 다음에는 칼리파의 이슬람화 정책과 이슬람 학문의 발전을 논의할 것이다.

1. 꾸란의 기독교 이해

먼저 꾸란에서 기독교와 기독교인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꾸란에 서는 “기독교인”이라는 단어는 나타나지 않는다. 기독교인들은 “경전의 백성”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데, 이 명칭은 54번 정도 나오며, 기독교인 외에도 유대인과 조로아스터 교인을 포함한다. 또한 “복음서 백성”이라는 특별한 명칭은 단 한 번 나온다(5:47). 흥미롭게도 꾸란에서 14번 정도 사용되고 오늘날 “기독교인”으로 번역되는 단어는 “안 나짜라”(an-Naṣārā)이다. 이 단어의 기원과 의미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이 단어가 그리스어로 나사렛파로 알려진 “나조라이오이(Nazwrai/oi)” “나zare노이(Nazarhnoi)”라는 단어⁵의 아랍어 형태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 그리스 단어는 고대 이단 논박자에 의해 “유대주의자” 혹은 “유대기독교인”을 일컫는 말이 되었지만,⁶ 꾸란에서 “안 나짜라”는 유대기독교인이 아니라, 7세기의 주류 기독교인을 가리킨다는 것은 분명하다.⁷

꾸란의 기독교 이해는 이중적이다. 한편으로 꾸란은 기독교인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기독교의 고유한 믿음과 관행을 권한다. 이를테면 무슬림은 유대인과 다신교인을 만날 때보다 기독교인을 만날 때 더 우호적인 대우를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독교인 중에는 오만하지 않은 성직자와 수도사가 많기 때문이다(5:82). 무함마드의 전기의 많은 구절에서는 무함마드가 기독교 수도사와 만나서 대화했다고 기록하며, 전승에 따르면 어떤 은수자가 무함마드의 청년 시절에 무함마드의 미래의 표징을 처음으로 알아보았다고 한다. 무함마드가 예언 활동을 시작할 초기에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는데, 이는 기독교 수도사를 생각나게 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꾸란은 일부 기독교적 관행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한다. 꾸란은

5. 이 단어는 이미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신약성경에서 사용되었으며(행 24:5), 아랍어 기독교 공동체, 특히 시리아 기독교에서는 계속 사용되었다. 나사렛파라는 이름이 후에는 에피파니오스나 테오도레토스와 같은 이단 논박 저자들이 유대 기독교인들을 일컫는 이름이었다.

6. 이 유대주의자 혹은 유대 기독교인 집단에 대해서는 Ray A. Pritz, *Nazarene Jewish Christianity: From the End of the New Testament Period until Its Disappearance in the Fourth Century* (Jerusalem: Magness Press and Leiden: Brill, 1988); Matt Jackson-McCabe ed. *Jewish Christianity Reconsidered: Rethinking Ancient Groups and Texts* (Minneapolis: Fortress, 2007)을 보라.

7. 이 명칭은 이슬람 이전 시기에 페르시아 제국의 동시리아 교회 저자들이 쓴 시리아어 본문에서, 특히 비기독교인이 기독교인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을 보도할 때, “기독교인”이란 뜻으로 사용되었다. F. De Blois, “Naṣrānī (nazwraioj) and ḥanīf (eqnikoj): Studies on the Religious Vocabulary of Christianity and Islam”, *Bulletin of the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65 (2002), 1-30.

기독교 성직자와 수도사가 재물을 축적한다고 비판하고(9:34), 수도운동이 발전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공격한다(57:27). 또한 꾸란에 따르면 무슬림은 기독교인으로부터 더 나은 환대를 기대할 수 있지만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을 친구나 보호자로 여기지는 말아야 한다(5:51). 그들은 무슬림에게 자신의 신앙을 따르라고 권유할 것이기 때문이다(2:120).

더 나아가서 꾸란의 일부 구절은 직접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공격한다. 삼위 일체설을 말해서는 안 되며(4:171), 하나님이 셋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것은 불경하며(5:73), 다신교의 오류에 빠지는 일이다(5:77). 꾸란은 예수가 메시아이며, 동정녀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3:45-49), 성육신을 부인하고 예수께서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강조한다(3:59, 5:116-117). 또 예수의 승천은 받아들여지지만(5:117, 4:157-159),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고 선언한다(4:157-159).⁸

꾸란은 무함마드의 청중 가운데는 아랍어를 말하는 기독교인이 있었으며,⁹ 무함마드는 이들을 이슬람 신앙으로 인도하려고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독교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은 이러한 올바른 신앙으로의 부름(다와)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¹⁰ 꾸란과 이슬람 전승은 무함마드 생전에 이미 무슬림과 기독교인의 만남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전승에 따르면 아랍 기독교의 중심지 중 하나였던 나즈란의 기독교 귀족들이 메디나에 있는 무함마드에게 사절을 보내 종교와 신앙에 대해 대화를 가졌다. 이때 무함마드에게는 거짓을 말하는 자에게는 알라의 저주를 선언하는 계시가 주어진다(3:61). 이는 무슬림과 기독교인의 첫 만남이 우호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역사를 통해 계속 반복되었다.

8. 무슬림은 이 구절에 근거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다고 해석해 왔다. 꾸란에서 이 구절은 유대인에 대한 비판--유대인의 불경, 마리아에 대한 비난, 예수의 십자가 형에 대한 자랑--의 맥락에서 나타나며,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주장한다고 기독교인을 비판하진 않는다. 그럼에도 초기 무슬림과 기독교인의 논쟁에서 십자가의 역사성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9. 이슬람 이전의 아랍 기독교인에 대한 연구로는 J. Spencer Trimingham, *Christianity among the Arabs in Pre-Islamic Times* (London and New York: Longman, 1979)이 있으며, 최근 연구로는 Theresia Hainthaler, *Christliche Araber vor dem Islam: Verbreitung und Konfessionelle Zugehörigkeit: Eine Hinführung* (Leuven-Paris-Dudley, MA: Peeters, 2007)가 있다.

10. Griffith (2008), 8.

2. 담미 제도

이슬람 신앙으로 무장한 아랍족은 무함마드 사후 정복 전쟁을 시도하여 시리아 지역을 탈취하고 페르시아 제국과 이집트를 정복하여 656년 내란으로 정복을 중단할 때까지 서쪽으로는 북아프리카, 동쪽으로는 호라산에 이르기까지 대제국을 건설했다. 이리하여 기독교의 5개의 총주교좌 중에서 콘스탄티노플과 로마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총주교좌(예루살렘, 안티오케이아¹¹, 알렉산드리아)에 속해 있던 모든 지역이 무슬림의 지배 아래 들어갔다. 7세기 중엽 무슬림이 지배하는 지역의 기독교인의 수는 당시 모든 기독교인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슬람 제국이 성립된 직후에 이슬람은 소수의 정복자, 정착민, 통치자의 종교에 불과했다. 이슬람 세력은 중앙정부와 피정복지의 중간 변경 지대에 암사르라는 병영도시를 설치하고 군대를 주둔시키며 정복지를 다스렸다. 소수 정예의 교역, 유목, 전사 집단이 주축이 된 이슬람 세력은 피정복지의 토착세력과 결탁하여 정치적 지배와 조세 확보를 전제로 피지배 민족의 종교와 문화를 보호했다. 기독교인은 유대인, 조로아스터교인, 사비교인과 함께 “경전의 백성”에 포함되어 무슬림의 보호를 받는 보호민(담미 혹은 아흘 알 담마)이 되었다.

담미의 지위는 무슬림 통치자와 비무슬림 공동체 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되었다. 계약의 기본 골격은 담미가 이슬람의 우위와 이슬람 국가의 지배를 인정하고 나아가 일정한 사회적 제약이나 인두세(지즈야) 납부를 통해 종속적 지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러한 인두세의 부과는 무함마드의 선례를 따른 것으로 이는 꾸란에도 규정되어 있다(9:29).¹² 인두세에 대한 대가로 담미는 생명과 재산의 안전, 외적의 침입으로부터의 보호, 신앙의 자유, 그리고 종교 지도자에 의해 관장되는 독자적인 행정체제를 통한 광범위한 내적 자치 등을 보장받았다.

담미는 노예보다는 유리한 상황에 있었지만, 무슬림보다는 훨씬 불리한 처지에 있

11. 본고의 그리스, 라틴 인지명 표기는 한국교회사학회의 인지명 통일안을 따른다.

12. 인두세의 금액은 차이가 있었지만, 대략 금 4디나르 혹은 은 40디르함 정도였고 빈부에 따라 금 1디나르에서 은 10디르함으로 세율을 낮출 수도 있었다. 또한 인두세는 성인 남성만 지불하며, 어린이, 가난한 자, 수도사와 은둔자는 면제되었다.

었다. 우마르 1세(634-644 통치)와 예루살렘의 총감독 소프로니오스의 계약에 따르면 기독교인은 무슬림으로부터 신앙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얻는 대신 예배당, 수도원, 암자 등을 신축하지 않고 무슬림 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수리하거나 보수하지도 않으며, 무슬림에게 전도하지 않고 이슬람으로의 개종을 막지 않아야 했으며, 의복과 탈 것에서 제약을 인정했다.¹³ 그럼에도 덤미 가운데는 거대한 부를 축적하여 경제력과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는 자도 있었다. 또한 처음 몇 세기 동안 무슬림 국가에서 유대인과 기독교인은 교사, 의사, 자문가, 행정가, 시인, 미술가로 칼리파를 섬겼으며, 그리스 서적의 번역운동에도 참여하여 이슬람 문명 창조에 동참할 수 있었다.

3. 칼리파의 이슬람화 정책

7세기 중엽에서 11세기 말까지 전 세계 기독교인의 약 50% 정도가 무슬림의 지배 아래 있었고, 무슬림 통치 첫 4세기 동안 칼리파 시대의 모든 곳, 심지어는 9세기 말까지 아랍어를 말하는 인구가 가장 많았던 메소포타미아, 시리아, 팔레스티나와 이집트에서도 무슬림은 인구의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지 못했다. 아랍 정복세력은 처음에는 기존 행정체제와 공용어를 유지했다. 하지만 칼리파 압드 알 말리크(685-705)와 그의 후계자들은 정복지역에서 이슬람의 지배를 공개적이고 기념비적인 방식으로 나타내려고 노력했다. 압드 알 말리크가 세운 알 아크사 사원(Dome of Rock)은 이러한 시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사원을 장식한 이슬람 문양은 당시 시대정신을 잘 보여 준다.¹⁴ 알 말리크는 도로 표지에도 이슬람의 신앙고백(샤하다)을 삽입하도록 했으며, 화폐 개혁을 단행하고 이슬람 문양을 지닌 동전을 만들었다. 그의 후계자인 칼리파 알 왈리드 1세(705-715)는 모든 공식 문서를 아랍어로 기록하도록 명령하였으며, 우마

13. 이른바 “우마르 계약”에 대해서는 A. S. Tritton, *The Caliphs and Their Non-Muslim Subjects: A Critical Study of the Covenant of 'Umar*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30); Antoine Fattal, *Le statut légal des non-musulmans en pays d'Islam* (Beirut: Imprimerie Catholique, 1958)을 참조하라.

14. 알 아크사 사원의 기초석에는 고대 아라비아 문자로 꾸란에서 따온 구절들이 새겨져 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그분은 낳지도 낳이지지도 않으셨다.....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사도이다. 마리아의 아들도 그러했다.”

르 2세(717-720)는 짧은 통치 기간에도 불구하고 조세법을 조정하고 모든 무슬림의 평등을 주장하여 개종을 장려했다. 또한 야지드 2세(720-724)는 십자가와 성화상 등 기독교의 공적인 상징을 제거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이러한 칼리파의 이슬람 개종 장려 정책은 기독교인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첫 계기를 마련해주었고, 이에 대한 신학적이고 목회적인 대응이 필요했다.

모든 무슬림의 평등을 원리로 하는 압바스 왕조는 이슬람 통치의 첫 세기 동안의 칼리파의 이슬람화 정책과 비잔티움 군대에 대한 계속된 승리를 배경으로 세워졌다. 압바스 왕조는 우마이드 왕조의 알-말리크와 그 후계자들의 이슬람화 정책을 계승하여 피지배 민중의 이슬람 개종을 장려했고,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조로아스터교인에 대한 완전한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약속했다. 이슬람으로의 개종을 보여주는 한 통계적 분석은 압바스 세기의 후반기부터 이라크와 시리아, 이집트 지역에서 최초로 대규모 개종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준다. 791-888년은 민중의 34%가 이슬람으로 개종했으며 이 시기부터 이슬람은 다수와 종교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¹⁵

압바스 왕조는 수도를 이라크로 옮겼으며, 두 번째 칼리파 알 만수르(754-775)는 바그다드를 건설했다. 750년 압바스 혁명 이후 거의 2세기 동안 이슬람 세계 안의 유대인과 무슬림과 기독교인은 모두 동쪽으로 눈을 돌려 새로운 수도이며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가 된 바그다드를 바라보았으며, 기독교인은 로마/비잔티움 세계로부터 고립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이슬람의 군사력이 비잔티움 황제, 니케포로스 포카스(963-969)와 그의 후계자인 요안네스 티미스케스(969-976)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었던 10세기 후반까지 지속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동부 시리아 교회는 총감독좌를 페르시아 제국의 옛 수도인 셀레우키아/크테시폰에서 767년 바그다드로 옮겼다.

4. 이슬람 학문의 발전

이슬람 세계의 학문은 8세기부터 발전되어, 압바스 시대는 이슬람 문명의 황금시대

15. Richard W. Bulliet, *Conversion to Islam in the Medieval Period: An Essay in Quantitative Histo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9).

라고 일컬어진다. 초기 이슬람 학자들은 학문과 체계를 갖춘 기독교와 유대교 신학에 맞서, 이른바 “종파적 분위기”에서 무슬림의 정체성과 이슬람 학문을 세우려고 노력했다.¹⁶ 이렇게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의 만남과 교류라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슬람 지식의 발전, 또 이에 대한 기독교의 대응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여기선 시라(*sīrah*) 문학과 일름 알 칼람(*‘ilm al-Kalām*), 두 가지를 살펴보고 아랍어 번역운동과 철학의 발전은 후에 다루겠다.¹⁷

시라 문학은 무함마드의 생애와 배경에 대한 기록을 가리킨다.¹⁸ 와흐브 이븐 무나비(728년 사망), 하산 알 바스리(728년 사망), 무함마드 이븐 이삭(약 767년 사망)과 알 와키디(747-822)와 같은 학자는 무함마드에 관한 이질적인 자료를 함께 모아 새로운 종교적 담론을 형성하였다. 그들의 목적은 유대교나 기독교의 예언자들에 맞서 무함마드의 예언자 상을 확립하고 무함마드를 국제적인 지도자로 묘사하며, 꾸란의 본문을 해설하며 연대기적인 틀을 만들고 초기 무슬림의 업적을 기록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위한 규범을 세우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무슬림 학자들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예언자 담론에서 발견되는 증명, 예비, 계시, 박해와 구원이라는 성경적 주제를 이슬람화하여 제시했다.¹⁹ 무슬림 신학자(무타칼리문)는 이러한 “예언적 표지”에 기초하여 무함마드가 참 예언자라는 변증적인 논증을 전개했고, 이는 기독교인과의 논쟁의 맥락에서는 참 종교에 대한 논증으로 발전했다. 초기 이슬람 시대의 시리아어와 아랍어로 쓰인 대중적 기독교 변증서에는 무슬림의 이러한 논증에 대응하여 참 종교의 표지를 나열하고 기독교만이 참 종교라고 주장했다.²⁰

일름 알 칼람은 이성을 사용하여 논증적으로 신앙의 내용을 방어하고 해명하

16. J. Wansbrough, *The Sectarian Milieu: Content and Composition of Islamic Salvation History*, London Oriental Series 34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17. W. Raven, “sīrah”, s.v. *Encyclopaedia of Islam: New Edition* 9 (Leiden: Brill, 1997), 660-663; L. Gardet, “ilm al-Kalām”, s.v. *Encyclopaedia of Islam: New Edition* 3 (Leiden: Brill, 1986), 1141-1150.

18. 본래 시라는 “가는 길”, “행동방식”, “행위”, “삶의 방식”, 또는 “기억할 만한 행동이나 그러한 행동의 기록”을 뜻한다.

19. Uri Rubin, *The Eye of the Beholder: The Life of Muhammad as Viewed by the Early Muslims; a Textual Analysis*, Studies in Late Antiquity and Early Islam 5 (Princeton: Darwin Press, 1995).

20. Griffith (2008), 96-99.

는 이슬람 정통신학을 가리키며,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신학자는 무타칼리문 (*muttakallimūn*)이라고 불린다. 일름 알 칼람의 기원은 씨편 전투 이후 무슬림 간의 분쟁으로 하와지르파, 쉬아파, 순니파가 등장하면서, 무슬림 사상가들은 이맘의 정당성과 신자의 지위, 신앙과 구원의 조건과 인간의 책임, 꾸란의 성격,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 유일성 등에 대해 숙고하기 시작했으며, 개별적 문제들에 대한 입장에 따라 하와지르파, 무르지아파, 자바르파, 까다르파 등의 학파들이 형성되었다. 엄밀한 의미에서의 칼람은 무타질라파의 등장으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여러 문제의 해결에 이성을 활용하려고 애썼고, 이성과 변증법을 논증의 방법으로 삼았다. 10세기에는 아사리파가 나타나 무타질라파와 대립했다.

이슬람의 칼람이 초기 형성 과정에서 기독교적 주제와 담론 양식에 영향을 받았지만 온전한 형태로 발전된 칼람은 완전히 이슬람적인 성격을 지닌다. 동시에 압바스 시대의 초기 기독교 변증서는 무슬림 신학자(무타칼리문)의 방법과 방식에 빚지고 있다. 초기 압바스 시대에는 무슬림과 기독교인 사이에는 신학적인 충돌과 사회적 차별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담론 공동체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III. 기독교의 대응(1)--그리스어와 시리아어 문헌

이제 꾸란의 기독교 비판, 딤미 제도, 칼리파의 이슬람화 정책, 이슬람 지식의 발전이라는 역사적 조건 속에서 기독교인이 이슬람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살펴보자. 여기서는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압바스 시대 초기에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한 시리아, 팔레스티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기독교가 산출한 문헌을 주요한 자료로 삼고, 크게 시리아/아랍어 문헌과 아랍어 문헌을 구분하여 다룰 것이다. 시리아 자료는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내적인 성격이 강하다면, 아랍어 문헌은 무슬림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독자층을 염두에 두고 쓰였고, 또 무슬림의 실제적인 응답과 반론도 존재했기 때문이다. 압바스 시대 초기의 문헌 자료를 다루기 전에 먼저 이슬람 세계 안의 기독교의 정파를 언어를 중심으로 개관하고 아랍 기독교의 발전을 다루고자 한다.

1. 이슬람 세계 안의 기독교 분파와 아랍 기독교의 발전

이슬람 세계 안에 편입된 동방 기독교인(Oriental Christians)들은 교회 언어에 따라 시리아/아랍인, 콥트인, 아르메니아인, 조지아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시리아/아랍인은 기독교론 논쟁 이후 교리적으로 분열되어 있었다. 시나이, 팔레스티나 혹은 트랜스 요르단에 사는 기독교인은 칼케돈 정통교리를 고수하였고, 그리스어가 지배적인 교회 언어였지만, 지교회에서는 팔레스티나 기독교 아랍어라고 불리는 아랍어 방언을 사용했다. 반면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에서 제국의 정통 교리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의 아랍어는 시리아어라고 일컬어진다. 이들 가운데는 알렉산드리아의 키릴로스의 신학을 이어받아 그리스어로는 안티오케이아의 세베로스, 시리아어로는 마복의 필록세노스의 기독교론적 정식을 받아들인 서시리아인(“단성론파” 혹은 “아콥파”)이 있고, 일찍이 로마 제국의 교회로부터 독립하여 페르시아의 수도인 셀레우키아-크테시폰을 중심으로 안티오케이아 학파의 대표자인 몁스에스티아의 테오도로스를 기초로 삼고 나르사이와 대 바바이의 신학과 기독교론을 따르는 동시리아인(“네스토리오스파”)이 있다. 무슬림 정복과 제6차 공의회(681)를 거치면서 이슬람 세계 안의 시리아/아랍 기독교인은 독자적인 교리적·교회적 정체성을 지닌 신앙고백적 공동체로 분열된다. 정통 기독교론을 거부하는 서시리아인과 동시리아인과 달리,²¹ 알렉산드리아, 안티오케이아, 예루살렘 등지에서 여섯 공의회의 정통 교리를 받아들인 기독교 공동체는 이때부터 “황제파”라고 불렸다. 또한 에데사의 시리아 교회 전통을 따르고 칼케돈 신앙을 고백하지만, 단이론적 입장을 받아들여 정통파로부터 분리되었다고 알려진 이른바 “마론파”가 존재했다.

이슬람 세계의 일상 언어인 아랍어를 교회 언어로 처음 받아들인 기독교 공동체는 “황제파”이며, 이러한 아랍화의 과정은 8세기 후반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예루살렘과 시나이 반도, 팔레스티나의 유대 광야의 황제파 수도원은 이슬람화된 아랍어

21. 시리아학계에서는 “단성론파”, “아콥파”, “네스토리오스파” 등 전통적인 명칭이 학문적 성격에 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보다 중립적인 “서시리아 교회”, “동시리아 교회”란 명칭을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본고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따르고자 한다.

를 교회 언어로 받아들여 성경과 성인전, 순교기, 교부선집을 번역하고 독창적인 아랍어 저술을 남겼다. 현존하는 최초의 아랍어로 쓰인 변증서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본성에 대하여』이며, 우리가 이름으로 알고 있는 아랍어로 저술한 최초의 기독교 신학자는 “황제파” 테오도로스 아부 꾸라였다. 이러한 아랍화의 과정은 서시리아 교회와 동시리아교회에서도 진행되어, 서시리아교회에선 하빌 이븐 키드마 아부 라이타(851년경 사망), 동시리아교회에선 암마르 알-바스리(850년경 활동)를 필두로 하여 아흐야 이븐 아디(893-974), 니시비스의 엘리아스(975-1046), 안티오케이아의 파올로스(약 1180) 등 다수의 아랍 기독교 신학자가 등장했다. 이들 가운데는 시리아어와 아랍어로 저술한 자들도 많았다.

이집트의 콥트인과 아르메니아인은 기독교론적으로는 “아콥파”의 입장을 따르지만, 시리아어를 말하는 “아콥파”와 구분되는 독자적인 조직과 고유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다. 콥트인은 10세기에 이르러서야 아랍어로 신학을 저술하고 교회 서적을 번역했다. 아랍어로 저술한 최초의 콥트 정교회 신학자는 세베로스 이븐 알 무가파(약 905-987)이며, 12세기와 13세기에는 아랍 기독교 문헌의 중심이 바그다드에서 이집트로 옮겨져 13세기 이집트는 아랍 기독교 문학의 황금기로 불린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르메니아인은 비록 이슬람의 태동 처음부터 이슬람 세계 안에 있었고 일상 언어에선 아랍어에 능통했지만, 아랍어를 교회언어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지아인은 콥트인과 아르메니아인처럼 독립적인 언어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신앙고백적으로는 “황제파”와 동일하다.

2. 아랍족 침입과 이슬람 신앙에 대한 기록

632년 무함마드의 사망 이후 이슬람 신앙으로 무장한 아랍족이 비잔티움 제국과 사산 제국으로 침략해 들어갔을 때, 이를 기록한 소수의 저자들은 제국이 약해졌을 때 변경 지역을 유린해왔던 아랍 부족의 약탈로 생각했다. 일부 기독교 저자들은 아랍족의 새로운 종교적 동기에 대해 주목했다. 이를테면 유대교에서 개종한 어떤 팔레스티나 유대 기독교인은 사라센인들에게 나타난 예언자를 거짓 예언자이며 적그리스도라고 부른다. 640년에 작성된 시리아 연대기는 무함마드라는 이름을 최초로 언급한다.

무슬림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을 때 총감독이었던 소프로니오스는 634년에서 637년 사이에 행해졌던 성탄절과 주현절 축일 설교에서 기독교인의 죄로 인해 아랍족의 약탈과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일어났다고 전한다.²²

하지만 7세기가 지나면서 아랍족이 과거처럼 광야로 돌아가지 않고 지배를 공고화하자, 기독교 저지들은 아랍족의 신앙에 대해 종교적이고 신학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이슬람에 대한 신학적인 비판을 제시한 현존하는 최초의 저작은 시나이의 아나스타시오스의 『안내자』(호데고스)이다. 690년대에 그는 “단성론파”를 비판하면서 “아랍족의 잘못된 관념”을 공격했다. 그는 아랍족은 두 신, 성자의 육체적 출생을 말하거나 피조물에게 부복하는 자를 정죄한다고 알려주는데, 비록 무함마드, 꾸란, 이슬람이란 말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진 않지만, 이러한 내용은 꾸란에 나오며 이슬람의 가르침과 관련된다. 『안내자』는 그리스어를 말하는 기독교 지도자가 꾸란의 용어를 알고 있었으며, 그가 무슬림 아랍족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기독교 가르침에 대해 무슬림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²³

서시리아교회 감독인 에테사의 야콥(708년 사망)도 무슬림과 기독교인의 만남에서 일어날 수 있는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는 무슬림이 되었다가 다시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자에게 재 세례를 줄 필요가 없으며, 무슬림과 결혼하고 신앙을 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여인에게 성찬을 주는 것이 정당하다는 규례를 제시한다. 또 그는 마리아도 다윗의 가문이라는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을 비교한다. 메시아가 다윗 자손이라는 신앙은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이나 무슬림에게 공통적이지만, 유대인은 오신 메시아를 거부하고 무슬림은 메시아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지만, 예수가 예언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무슬림은 말씀과 영을 구분할 수 없어서 메시아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영이라고 생각한다는 야콥의 비판은 그가 이와 관련된 꾸란의 구절(4:171)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²⁴

22. Griffith (2008), 23-28.

23. Griffith, “Anastasios of Sinai, the Hodegos and the Muslims”, *Greek Orthodox Theological Review* 32 (1987), 341-58.

24. Griffith (2008), 31-32.

3. 묵시문학

아랍 무슬림의 정복 지역에서 이슬람의 종교적 도전에 대해 지속적인 대응을 보여주는 최초의 문학 장르는 묵시문학이었다.²⁵ 아랍족의 정복이 시작된 7세기의 사회적 격변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종말이 가까웠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대항한다.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일어나며, 우리에게 온 오직 한 가지만 부족하다. : 거짓말쟁이[사탄]의 도래.”²⁶ 특히 페르시아 제국과 아랍족의 침입, 아랍족의 두 번째 내전(683-692년)은 묵시적이고 메시아적인 대망을 불러일으켰다.²⁷

이 시기에 대표적인 묵시문학으로는 리키아의 올림포스의 감독(312년 사망)으로 많은 저술을 남긴 순교자 메토디오스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위-메토디오스의 묵시록』이 있다.²⁸ 무슬림의 지배에 대한 성경적 응답을 제시하려는 『위-메토디오스의 묵시록』은 691년경 시리아어로 씌어졌고, 곧 그리스어로 번역되었으며, 그 이후 여러 다른 언어로 옮겨져 큰 영향을 주었다.

『위-메토디오스의 묵시록』은 페르시아 제국이 사라지고 비잔티움 제국이 심각하게

25. 시리아 묵시문학에 대해서는 Francisco Javier Martinez, “The Apocalyptic Genre in Syriac: The World of Pseudo-Methodius”, in H. J. W. Drijvers et al. eds., *IV Symposium Syriacum 1984: Literary Genres in Syriac Literature (Groningen -- Oosterhesselen 10-12 September)*, (Roma: Pont. Institutum Studiorum Orientalium, 1987), 337-352를 참조하라.

26. A. Mingana, ed. & tr., *Sources syriaques* (Leiden, 1907), 165/192-3; S. P. Brock tr., “North Mesopotamia in the Late Seventh Century. Book XV of John Bar Penkāyē’s *Riṣ Mellē*”, *Jerusalem Studies in Arabic and Islam* 9 (1987), 72.

27. Dragon, “Juifs et Chrétiens”, *TM* 11 (1991), 38-43, 『위-에프렘』(H. Suermann ed. & tr., *Die geschichtstheologischer Reaktion auf die eintallenden Muslime* [Frankfurt, 1985], 12-33), 『12사도의 복음』(H. J. W. Drijvers, “The Gospel of the Twelve Apostles: A Syriac Apocalypse from the Early Islamic Period”, in Averil Cameron and Lawrence I Conrad eds., *Byzantine and Early Islamic Near East I: Problems in the Literary Source Material*, Studies in Late Antiquity and Early Islam 1 [Princeton: Darwin Press, 1992], 189-213). 만다교 문헌은 아랍족의 지배 71년에 종말이 온다고 제시했고 (M. Lidzbarski tr., *Ginza: Der Schatz, oder das große Buch der Mandäer* [Göttingen, 1925], 411-6), 이슬람 안에서도 메시아(마흐디) 사상이 전개되었다(W. Mandelung, “Abdallāh b. Zubayr and the Mahdī”, *Journal of Near Eastern Studies* 40 (1981), 291-305; idem, “Apocalyptic Prophecies in Hims in the Umayyad Age”, *JSS* 31 (1986), 141-86.

28. Gerrit J. Reinink, *Die syrische Apokalypse des Pseudo-Methodios*, Corpus Scriptorum Christianorum Orientalium(=CSCO), 540-541 (Louvain: Peeters, 1993).

타격을 입고, 무슬림 아랍족이 지배가 공고화되는 상황에서 역사와 종말의 문제를 탐구한다. 저자는 다니엘서의 네 왕국론을 토대로 역사를 설명하고 종말적 사건을 예견하며,²⁹ 이러한 틀 안에서 아랍족의 침략을 해석한다. 아랍족의 약탈은 새로운 세계권력 혹은 왕국의 수립이 아니라 페르시아 멸망의 기회를 틈타 로마인을 위협하는 야만인의 채찍으로, 적그리스도의 출현 이전에 타락한 기독교 세계에 대한 일시적인 징벌이다. 결국 다니엘서에 나타난 네 왕국의 틀은 변함없이 유지되며, 마지막 왕국은 그리스 왕국(비잔티움 제국)이 된다. 『위-메토디오스의 묵시록』의 중요한 사상 중 하나는 종말의 마지막 황제에 대한 사상이다. 마지막 그리스 왕(비잔티움 황제)은 적그리스도를 물리치고 골고다로 올라가서 십자가 위에 왕관을 두면, 왕관과 십자가가 하늘로 오르며, 그리스 왕은 자신의 왕국을 성부 하나님께 바칠 것이다.³⁰

또한 시리아 기독교인들은 이슬람 전승에서 나타나는 바히라의 이야기를 묵시문학으로 개작했다. 바히라는 이슬람 전승에서 무함마드와 만나 그의 미래를 예언했다고 전해지는 수도사인데, 압바스 시대의 일부 변증가는 이 수도사가 이단자였다고 주장했다. 8세기 전반에 바히라의 이야기는 무슬림의 지배를 곧 지나갈 인류사의 한 단계로 해석하는 묵시적이고 종말론적인 기독교적 전설로 변용되었다.³¹

4. 변증서와 신학 교본

압바스 시대에는 다수의 시리아어와 아랍어 변증서가 출현했다. 이는 우마이드 왕

29. 원래 이 사상은 페르시아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이는 유대-기독교 세계에서 다니엘서를 통해 유명해졌다. 시리아교회는 네 왕국론의 기본적인 틀을 받아들였으며, 네 번째 왕국은 로마제국이라고 생각했다. 시리아 교회의 네 왕국론의 수용은 4세기 아프리카트의 『논증』(*Demonstrationes*)에서 잘 나타난다.

30. 이 마지막 황제는 무슬림 세력이 격파된 후에 10년 반 동안 예루살렘을 지배할 것이다. 그는 에티오피아인의 왕인 필의 딸 쿠샷의 아들로, 이로써 시편 68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 G. Reinink, "Pseudo-Methodius und die Legende von römischen Endkaiser", in Avril Cameron and Lawrence I Conrad eds., *The Byzantine and Early Islamic Near East I: Problems in the Literary Source Material* (Princeton: Darwin Press, 1992), 149-87.

31. Griffith, "Muḥammad and the Monk Baḥīrā: Reflections on a Syriac and Arabic Text from Early Abbasid Times", *Oriens Christianus* 79 (1995), 146-74; Babara Roggema, "A Christian Reading of Qur'ān: The Legend of Sergius-Baḥīrā and Its Use of the Qur'ān and Sīra", in David Thomas ed., *Syrian Christians under Islam: The First Thousand Years* (Leiden: Brill, 2001), 57-73.

조 후기부터 시작된 이슬람화 정책과 이슬람 신학의 발전이 압바스 시대에는 더욱 강화되면서 기독교인의 이슬람 개종을 막고 무슬림 학자의 기독교 비판에 대한 신학적인 응답이 요청되었기 때문이다.³² 기독교인의 이슬람에 대한 대응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하나는 실제적인 대화나 토론의 기록과 편지 형식의 논문으로 쓰인 변증서이며, 또 하나는 이슬람의 도전에 대응하여 기독교 신학이나 철학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신학 교본이다.

기독교인의 변증서는 우마이드 시대 후기부터 나타났다. 현존하는 최초의 이슬람에 대한 변증서는 8세기 초반 시리아어로 쓰인 『총감독 유하난과 에미르와의 대화』이다.³³ 이 변증서는 서부 시리아 교회의 총감독 유하난 드세드라우(John of the Sedre 631-48 재위)가 644년 5월 9일 주일에 무슬림 에미르(아마도 우마이크 이븐 사드 알 안싸리였을 것이다)에게 질문을 받아 편지로 응답하는 방식으로 쓰였다. 이 변증서에서 주목할 점은 총감독이 증거로 제시하는 그리스어와 시리아어 성경을 검토할 무슬림 학자들이 배석했으며, 이러한 증언이 토라를 왜곡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언할 유대인도 소환되었고, 타누크족, 타이이족, 아쿨 출신 사람들 등 세 아랍 기독교 집단에 속한 자들도 참석했다는 점이다. 『벧 할레의 수도사와 아랍 귀족의 대화』(720년경)는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또 다른 변증서다. 저자는 꾸란을 인용하고 일부 수라의 이름을 대며, 무함마드가 수도사와 은둔자에 대해 호의적으로 말한 전승을 인용하며 바히라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또한 일반적인 변증 문헌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은 주제인 성화상과 십자가와 순교자 유골에 대한 공경이 다뤄지는 것도 이 변증서의 특징이다.³⁴

이미 우마이드 시대에는 이러한 변증서 외에도 이슬람의 지적인 도전에 대응하여 기

32. 이슬람 세계 안에서의 시리아 변증서에 대해서는 Griffith, "Disputes with Muslims in Syriac Christian Texts: From Patriarch John (d. 648) to Bar Hebraeus (d. 1286)", in *Religionsgespräche im Mittelalter*, ed. B. Lewis and F. Niewöhner, Wolfenbütteler Mittelalter-Studien 4 (Wiesbaden: Harrassowitz, 1992), 251-273을 참조하라.

33. 이 변증서는 644년의 사건을 기록하고 874년에 쓰인 필사본에서 전해지지만, 8세기 첫 30년 동안에 저술되었다고 추정된다. C. J. Reinkin, "The Beginnings of Syriac Apologetic Literature in Response to Islam", *Oriens Christianus* 77 (1993): 167-87; F. Nau, "Un colloque du patriarche Jean avec l'émir des Agaréens", *Journal Asiatique*, 11/5 (1915), 225-79.

34. Griffith, "Disputing with Islam in Syriac: The Case of the Monk of Bêt Hâlê with a Muslim Emir", *Hugoye* 3.1 (January, 2000), <http://Syrcom.cua.edu/Hugoye/Vol3No1/HV3N1/Griffith.html>.

독교 가르침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려는 신학 교본이 출현했다. 다마스코스의 요안네스(749/764년 사망)는 “황제파”의 신학 언어인 그리스어로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의 신학대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지식의 샘』을 저작했다.³⁵ 본서는 기독교 교리에서 사용되는 철학적 용어 정리, 기독교 이단의 목록과 설명, 정통 교회의 여섯 공의회와 가르침에 따르는 기독교 교리 해설,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2부에서는 100개의 이단 중 마지막 이단으로 “이스마엘족의 이단”이란 제목으로 이슬람을 다룬다. 요안네스는 이슬람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여기저기서 꾸란 구절을 암시한다. 그의 접근은 논쟁적이었으며, 이슬람의 가르침과 관행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무함마드를 적그리스도의 선구자라고 부른다. 하지만 요안네스의 이슬람에 대한 대응은 『지식의 샘』의 전체적인 목적과 연관되어 포괄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는 이슬람의 지적인 도전에 대해 전면적으로 대응하려고 했으며, 이슬람을 포함한 모든 이단적 가르침을 논박하기 위한 정통신앙을 정리한 신학 교본을 저술하려고 했다.

압바스 시대에 이르면 보다 많은 시리아 변증서와 교본이 출현한다. 8세기 말 동시리아 교회의 테오도로스 바르 코니(792년경 활동)는 “황제파” 다마스코스의 요안네스처럼 이슬람에 지적인 도전에 대응하여 성경 주석의 형태로 기독교 가르침을 총체적으로 제시했다.³⁶ 『에스콜리온』이라고 제목을 붙인 그의 저서는 모두 11개의 장 혹은 논문(memre)으로 이루어져 있다. 처음 9개의 장은 성경책의 순서를 따라 제자가 묻고 스승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교리를 제시한다.³⁷ 제10장은 앞의 장들과 같이 스승과 제

35. 텍스트로는 Raymond Le Coz ed., *Jean Damascène: Écrits sur Islam*, Sources Chrétiennes 383 (Paris: Cerf, 1992), 연구서로는 Daniel J. Sahas, *John of Damascus on Islam: The "Heresy of the Ismaelites"* (Leiden: Brill, 1972)를 참조하라.

36. Griffith, "Theodore bar Kōnī's Scholion: A Nestorian Summan contra Gentiles from the First Abbasid Century", in N. Garsoian, T. Matthews, and R. Thomson eds., *East of Byzantium: Syria and Armenia in the Formative Period* (Washington, DC: Dumbarton Oaks, 1982), 53-72. 텍스트로는 Addai Scher, *Theodoros bar Kōnī Liber Scholiorum* CSCO 55, 69 (Paris: E Typographeo Republicae, 1910 and 1912)이 있다.

37. 제1장이 창세기 첫 부분을 다룬다면, 제2장은 창조의 여섯째 날부터 아브라함까지, 제3장은 아브라함의 시험부터 모세와 이스라엘의 역사까지, 제4장은 예언서를 이샤야, 12소선지서, 에스겔, 예레미야의 순서로 논의하고, 제5장은 잠언, 벤 시락, 전도서, 욥기, 다니엘, 시편, 룻, 유딧, 에스터를 풀이한다. 다음 4개의 장은 신약을 다루는데, 제6장에서는 철학적이고 신학적 용어를 정리하고, 제7,8장은 복음서와 사도행전, 제9장은 서신서의 어려운 구절에 대한 질문과 함께 기독교적이고 역사적인 문제를 다룬다.

자의 대화 형식으로 무슬림의 비판에 대한 기독교인의 변증을 다룬다. 제11장은 부록으로 이단과 이단 우두머리의 목록과 함께 그 가르침을 요약한다.

“에스콜리온”이란 단어는 그리스 단어 “스콜리온”(scolion)의 시리아어 음역인데 이는 강론이나 주석과는 달리 난해한 구절에 대한 해설이란 뜻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에스콜리온』은 단순히 성경주석이라고 이해하긴 어려우며 교부들의 저서에서 가장 좋고 유용한 해설을 수집하여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교본으로 이해할 수 있다.³⁸ 『에스콜리온』의 기본적인 해석학적 원리는 구약의 하나님의 경륜은 신약을 지향하고 있다는 모형론적 해석으로 이는 처음 아홉 장의 구조와 내용을 결정한다. 이슬람에 대한 변증을 다룬 제10장의 제목은 “구약성경을 받아들인다고 고백하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오심을 인정하면서도 이 두 가지에 지극히 멀리 떨어져 있으며, 모든 성경으로부터가 아니라 그들이 인정하는 성경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위한 변증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람들을 반박하기 단순한 언어로 작성된 논박과 반박,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진 토론”이다. 이렇게 볼 때 테오도로스는 무슬림이 기독교적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앞의 아홉 장에서 다룬 모형론적 원리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제시한다. 따라서 제10장은 이 책의 부록이 아니라 테오도로스의 주장을 요약하고 보다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³⁹ 『에스콜리온』은 이슬람의 도전에 대응하여 성경 주석 형태로 기독교 신학의 내용을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이에 근거하여 이슬람에 대한 응답을 제시하는 저서이다.

테오도로스 바르 코니와 동시대 인물인 총감독 티마테오스(727/8-823)는 유능한 행정가였을 뿐만 아니라 탁월한 학자였다. 그의 저서는 교회 생활의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 수도사와 감독에게 풀이하는 편지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문집 안에 보존되어 있

38. 성경과 관련된 처음 아홉 장의 3분의 1은 우주론적이고 철학적이고 인간론적이고 심리학적인 논의가 나타나며, 테오도로스는 성경뿐만 아니라 교부들의 의견도 제시한다고 밝힌다. 10세기 사전 편찬자인 바르 바흐룰은 “에스콜리온”이 “누하리”, 즉 학교에서의 가르침을 이루는 해설적인 주해라는 뜻이라고 밝히며, 테오도로스 자신도 서문에서 동부 시리아 교회의 표준적인 주석서를 뜻하는 “질문(슈알레)의 책”과 구별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제목을 택했다고 말한다. 즉 『에스콜리온』은 동부 시리아 주석서처럼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쓰였지만, 요약적 교본이라는 점에서 주석서와 구별된다.

39. Griffith, “Chapter Ten of the Scholion: Theodoe bar Kōnī’s Apology for Christianity”, *Orientalia Christiana Analecta* 218 (1982), 169-91.

다.⁴⁰ 그는 시리아어로 저술했지만 그리스어에 능통하고 아랍어에 유창했으며 일부 논문 형식의 편지는 널리 유포되었다. 또한 그는 칼리파 알 마흐디(775-85년 재위)로부터 아리스토텔레스의 『토피카』를 아랍어로 번역하도록 위임을 받았다. 그는 그리스어 원문을 참조하면서 이전의 시리아 역본으로부터 작업했으며, 당시 모술의 무슬림 총독 비서였던 아브 누흐 알 안바리의 도움으로 과제를 마쳤다.

이슬람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선 두 작품이 특히 중요하다. 티마테오스의 편지 40은 총감독이 칼리파 궁정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와 논리 용어의 정의와 기독교 신학에서의 활용에 대해 토론한 내용을 기록하는 형식으로 쓰였다.⁴¹ 여기서는 일반적인 인간 지식의 양식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표현하는 용어에 대한 탐구로 나아간다. 이러한 접근은 전형적인 칼람 논문의 기초 작업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티마테오스가 다마스코스의 요안네스나 테오도로스 바르 코니와 같이 이슬람의 도전에 맞서 기독교 교리의 근본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⁴² 티마테오스의 저서 중 가장 잘 알려진 저서는 이틀 동안 칼리파 알 마흐디에게 부름을 받아 종교적인 대화와 논쟁에 참여한 다음 기록한 변증서일 것이다.⁴³ 티마테오스는 편지 형식으로 칼리파 궁정에서 일어난 종교 토론의 내용을 기록하는데, 이 변증서는 매우 인기가 있어서 시리아어로는 장문본과 축약본이 있고 아랍어 판본도 여러 개가 존재한다.

서시리아 교회의 니시비스의 논노스(870년경 사망)는 무슬림뿐만 아니라 “황제파”와 “네스토리오스파”를 논박하고 “아콥파”의 기독교론을 방어했다. 논노스는 850-870년에 시리아어로 이슬람에 대한 변증서를 저술했다.⁴⁴ 논노스의 변증서는 처음에는 편

40. 텍스트는 Oscar Braun ed., *Timothei Patriarchae I: Epistulae*, CSCO 74-75 (Louvain: Secrétariat du CorpusSCO, 1953 and 1915); Raphael Bidawid, *Les lettres du patriarche nestorien Timothée*, Studi e Testi 187 (Vatican City: Biblioteca Apostolica Vaticana, 1956).

41. Hanna Cheikho, *Dialectique du langage sur Dieu de Timothée I(728-823) à Serge* (Rome: Institutum Studiorum Orientalium, 1983).

42. Griffith, “Jews and Muslims in Christian Syriac and Arabic Texts of the Ninth Century”, *Jewish History* 3 (1988), 65-94.

43. 텍스트와 영어번역은 Alphonse Mingana, *Woodbrooke Studies: Christian Documents in Syriac, Arabic and Garshūni; Edited and Translated with a Critical Apparatus*, vol. 2 (Cambridge: Heffer, 1928), 1-162을 참조하라.

44. A. Van Roey, *Nonnus de Nisibe; traité apologétique*, Bibliothèque du Muséon 21 (Louvain: Peeters, 1948).

지 형식을 지니고 있지만 대화체가 아니고 유일신론, 삼위일체론, 성육신에 대한 논문 형식으로 쓰였는데, 특히 기독교론에 관심을 두었다. 논노스는 이 논문을 9세기 이란에서 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교 중에서 참 종교를 찾으려는 사람을 위한 안내서 형식으로 구성했는데, 이는 ‘누가 이리이러한 것을 말하거나 물으면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는 표현을 포함해서 표준적인 칼람 형식을 따른다. 칼람의 영향은 모세 바르 케파(903년 사망)의 저작으로 돌려지는 또 다른 작품에서도 발견된다. 자유의지와 예정론에 대한 논쟁을 수집한 이 작품에는 무슬림을 논박하는 한 장이 수록되어 있다. 자유의지는 칼람 문헌에서 중요한 주제 중 하나였고 9세기와 10세기의 기독교인과 무슬림 사이에 주요한 논쟁 주제 중 하나였다. 이 작품은 시리아 교회가 무슬림을 자유의지에 대한 반대자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⁴⁵

초기 압바스 시대를 벗어나지만, 서시리아 교회의 디오니시오스 바르 살리비(1171년 사망)는 무슬림과의 논쟁과 관련된 시리아 변증서 중 가장 포괄적인 변증서를 저술했다. 그는 독자에게 이슬람에 대한 진리를 알리고 이슬람의 도전을 논박하는데 적절한 논증을 제공하려고 했다. 디오니시오스는 무슬림의 역사와 교리를 자세히 언급했으며, 마지막 3분의 1은 꾸란을 시리아어로 번역하고 해설한다. 그는 무슬림 가운데 법 해석자보다는 무타칼리문과 철학자들과 논쟁하라고 권한다. 또한 바르 에브로요(Barhebraeus 1286년 사망)의 백과사전적인 신학서인 『성소의 촛대』(*Candelabra of the Sanctuary*)와 그 요약본인 『광채의 책』(*Book of Light Rays*)에서 이슬람에 대한 변증을 제시한다. 그는 독자들에게 이슬람에 대한 진실을 알리고 기독교 교리에 대한 무슬림의 비판을 논박하기 위한 논증을 제공한다. 특히 『성소의 촛대』는 시리아 저작으로는 유일하게 꾸란 이외에 다른 이슬람 저작을 인용했다.

시리아 논쟁서와 변증서는 아랍어 문헌에 비해 수가 작다. 이는 이슬람 세계에서 시리아어가 소수파의 언어가 되었다는 사실로 설명될 수 있다. 칼리파가 지배하는 지역에서 실제적인 논쟁과 토론은 아랍어로 행해졌다. 시리아 변증서는 기독교 공동체 내부를 위해서 저술되었으며, 이슬람의 교리적인 공격에 대해 방어하고, 개종의 유혹에

45. Griffith, “Free Will in Christian *Kalām*: Moshe bar Kepha against the Teachings of the Muslims”. *Le Muséon* 100 (1987), 143-159.

흔들리는 신자에게 기독교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문헌에서 무슬림의 입장은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기독교적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해 제시되었다. 시리아 변증서는 기독교인이 이슬람 칼람의 형식을 활용하여 기독교를 변증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토착화의 현상은 아랍어 문헌에서 더욱 분명히 나타난다. 이제 아랍어 문헌과 신학을 살펴보자.

IV. 기독교의 대응(2)—아랍 기독교와 신학의 발전

무슬림 지배 아래 있는 기독교인이 아랍어로 저술하기 시작한 시기는 8세기 후반 정도로 추정할 수 있으며, 문헌적 증거는 8세기 마지막 3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는 이슬람 세계 안에 있는 기독교인이 아랍어를 일상적인 언어뿐만 아니라 교회의 언어로 채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초로 아랍어를 교회의 언어로 사용한 공동체는 예루살렘, 시나이 반도, 팔레스티나의 유대 광야에 흩어진 이른바 “황제파”로 이들은 이슬람화된 아랍어를 교회 언어로 받아들여 성경과 성인전과 교회 고전적인 작품을 아랍어로 번역하는 한편, 아랍어로 신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⁴⁶ 이어서 서시리아 교회와 동시리아 교회의 저자도 아랍어로 저술하여 이슬람 세계의 종교적 담론에 참여하였다.

1. 복음서 번역

이슬람의 태동 이전에 아랍 기독교가 존재했었지만, 아랍어로 성경이 번역되었다는 증거는 전무하다. 현존하는 아랍어 성경, 특히 복음서의 필사본은 9세기까지 거슬

46. 가장 초기의 아랍 기독교 문헌은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첫째 범주는 “교회의 서적”으로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을 위해 요구되는 문헌으로, 여기에는 성경, 교부 문헌, 영감적인 강론, 성인전, 신조와 교회법의 이해당위인데 그리스어와 시리아어 작품의 번역물이다. 둘째 범주는 변증서로 볼 수 있는 문헌으로 이는 기독교 공동체 외부를 염두에 두고 저술되었다. 변증서의 저자는 당대의 지적인 도전과 관련시켜 전통적인 기독교 가르침을 당대의 언어로 제시하고자 했다. Griffith, “From Aramaic to Arabic: The Languages of the Monasteries of Palestine in the Byzantine and Early Islamic Periods”, *Dumbarton Oaks Papers* 51 (1997), 11-31; “The Monks of Palestine and the Growth of Christian Literature in Arabic”, *The Muslim World* 78/1 (January 1988), 1-28.

리 올라가며, 아마도 그 이전에는 아랍어 복음서가 없었을 것이다.⁴⁷ 아랍어 복음서는 예배와 변증을 목적으로 9세기 팔레스티나의 황제파에 의해 처음 만들어졌다. 메소포타미아와 이라크의 시리아 교회에서는 일찍부터 시리아어로 예배를 드린 반면, 시리아/팔레스티나에서는 우마이드 시대까지 그리스어가 교회 언어였다. 4세기에 이르면 시리아/팔레스티나에서는 예배 중에 그리스어를 아랍어로 통역했지만, 예배와 예식서는 그리스어로 남아 있었다.⁴⁸ 5세기에 시리아/팔레스티나의 황제파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아랍어로 번역했는데(팔레스티나 기독교 아랍역본), 신약성경은 특히 예배를 위한 성구집(*lectionary*)이 잘 알려져 있다. 9세기에 이르면 예배를 위해 민중의 언어인 아랍어로 복음서를 번역할 필요가 있었다. 아랍어 복음서 필사본은 성구집 형태가 아니라 연속적인 본문으로 4복음서를 보여주며, 예전적인 주서가 표시되어 있다.

복음서와 성경의 다른 부분을 아랍어로 번역하는 일은 이슬람의 도전에 대해 기독교를 변증하는 작업이기도 했다. “복음”(Injil)이라는 용어는 꾸란에서 12번 정도 사용되었으며, 꾸란에서는 복음이 예수에게 주어진 신적 계시라고 선언한다. 그럼에도 압바스 시대와 이후의 무슬림 학자들은 기독교인이 사용하는 신약성경이 정확하지 않고 오전(誤傳)되었으며, 기독교인에 의한 복음의 변조(*tahrif*)를 주장했다. 이는 꾸란에 유대인의 토라와 관련되어 나타난 의미의 왜곡과 단어의 변용(4:46, 5:13)을 신약성경에까지 확대한 것이다.⁴⁹ 이러한 무슬림의 공격에 맞서 압바스 시대 기독교 변증가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서술하고, 토라와 복음의 주해 원리를 설명하고, 복음만이 신앙을 보증하는 유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을 아랍어로 번역하는 작업은 무슬림에게 복음을 올바르게 제시하려는 변증적 의도를 포함했다.

47. Griffith, “The Gospel in Arabic: An Inquiry into Its Appearance in the First Abbasid Century”, *Oriens Christianus* 69 (1985), 126–67.

48. 아랍어 통역자에 대한 최초의 증거는 에게리아의 『순례기』에서 발견된다(Griffith, “Monks of Palestine”, 5 쪽 참조).

49. 11세기 무슬림 학자는 이븐 하즘은 연대적이고 지리적인 부정확성과 모순, 신학적인 불가능성(신인동형론적 표현 등), 신뢰할 수 없는 본문 전승 유대인의 토라와 기독교인의 복음이 변조되었다고 공격했다. Hava Lazarus-Yafeh, “tahrif”, s.v. *The Encyclopaedia of Islam: New Edition* 10 (Leiden: Brill, 2000).

2. 아랍어 변증서

현존하는 최초의 아랍어 변증서는 8세기에, 아마도 755년에 저술되었다고 추정되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본성에 대하여』이다.⁵⁰ 이는 익명으로 전해지는 논문 형식의 변증서로 저자는 삼위일체론, 구속사에서 메시아, 성육신론, 사도들의 사명을 다루고, 꾸란에서 언급된 토라, 예언서, 시편과 복음서를 열거하면서 성경으로부터 기독교의 가르침을 증명하려고 한다. 저자는 특히 구약성경을 많이 인용하는데, 이 구절들은 복음서에서 그 온전한 의미와 실현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해설한다. 더 나아가서 저자는 꾸란으로 삼위일체론을 증명하고자 한다. 그는 꾸란을 명시적으로 인용할 뿐만 아니라 꾸란의 어휘와 사고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는 아랍어 꾸란을 인용한 최초의 저작이다.⁵¹ 8세기로 추정되는 파피루스 단편에 수록된 또 하나의 변증서도 기독교 교리에 대한 성경의 증언과 함께 꾸란이 인용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최초의 아랍어 변증서가 나올 무렵 기독교인과 무슬림의 논쟁과 토론은 꾸란의 주장에 맞서서 성경적인 증거와 성경 해석을 제시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우리가 이름으로 알고 있는 아랍어로 저술한 최초의 기독교 신학자는 “황제파” 테오도로스 아부 꾸라이다. 그는 에데사 출신으로 유대 광야의 마르 사바스 수도원의 수도사로 있었고, 9세기 초 하란의 감독이 되었다. 그는 시리아어와 아랍어로 저술했는데, 시리아어 작품은 전해지지 않고, 20편 정도의 아랍어 저작, 43편 정도의 그리스 저작이 전해진다. 아부 꾸라는 칼리파 알 말문의 장군인 타히르 이븐 알 후사인을 위해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의 힘에 대하여』란 논문을 아랍어로 번역했다.⁵²

50. Margaret Dunlop Gibson, *An Arabic Version of the Acts of the Apostles and the Seven Catholic Epistles, with a Treatise on the Triune Nature of God*, *Studia Sinaitica* 7 (London: C. J. Clay and Sons, 1899), 74-107(아랍어), 2-36(영어).

51. Samir Khalil Samir, “The Earliest Arab Apology for Christianity (c. 750)”, in Samir Khalil Samir and Jørgen S. Nielson eds., *Christian Arabic Apologies during the Abbasid Period (750-1258)* (Leiden: Brill, 1994), 57-114.

52. Griffith, *Theodore Abū Qurrah: The Intellectual Profile of an Arab Christian Writer of the First Abbasid Century* ([Tel Aviv]: Tel Aviv University, 1992).

아부 꾸라는 799년 이후에 성화상 공경을 변호하는 아랍어 논문을 썼다.⁵³ 이 논문에서는 무슬림이 성화상 공경을 우상숭배라고 비난하며, 많은 기독교인이 이런 비난에 영향을 받아 성화상에 부복하는 것을 포기하는 당시 상황을 서술하면서 성화상 공경을 옹호한다. 그는 기독교 신학 주제에 대한 16여 편의 논문을 썼는데, 무슬림은 항상 그의 대화 상대였다. 그는 당대의 무슬림 신학자(무타칼리문)가 논의하고 있는 주제들을 잘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기독교적인 응답을 내놓았다. 이러한 글로는 “창조주의 존재와 참 종교”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은 피조된 본성 안에 항구적인 자유를 지니며 어떠한 규제도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의 자유를 이길 수 없다”는 논문이 중요하다. 전자는 이성으로 만물의 창조자이신 한 하나님의 존재를 전통적인 목적론적 논증을 사용하여 당대의 무슬림 신학자(무타칼리문)의 방식에 따라 증명하며, 꾸란의 예언론을 활용하여 참된 종교의 이성적인 표지를 제시하고 9개 종교집단을 조사하고 기독교가 참 종교임을 밝힌다. 자유의지에 대한 논문에서 아부 꾸라는 마니교와 인간이 선이나 악으로 강요된다는 이슬람 학자(*mujbirah*)에 대항하여 자유의지를 옹호한다. 아부 꾸라는 이미 이슬람화된 아랍어 관용구를 사용하여 기독교 공동체의 전통적 가르침을 제시했다.⁵⁴

아부 꾸라보다 후대이지만 그와 함께 아랍 기독교의 첫 세대 신학자로 알려진 인물로는 서시리아 교회의 하빔 이븐 키드마 아부 라이타(851년 사망)와 동시리아 교회 암마르 알 바스리(850년 활동)가 있다. 아부 라이타의 변증서는 “그리스도와 성 삼위에 대한” 편지-논문(리살라)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미완성된 형태로 우리에게 전해진다. 이와 함께 삼위일체, 성육신론, 황제파 논박, 트리스타기온에 대한 야콥파의 첨가 등에 대한 논문이 출판되었다.⁵⁵ 아부 라이타 저작, 특히 삼위일체론을 다루는 논문의 특

53. Griffith, trans., *A Treatise on the Veneration of the Holy Icons Written in Arabic by Theodore Abū Qurrah, Bishop of Harrān c. 755-c. 800 A.D.*, Eastern Christian Texts in Translation 1 (Leuven, Peeters, 1997).

54. Griffith, “Faith and Reason in Christian Kalām: Theodore Abū Qurrah on Discerning the True Religion”, in *Christian Arabic Apologetics during the Abbasid Period (750-1258)*, ed. S. Kh. Samir and J. S. Nielsen (Leiden: Brill, 1994), 1-43.

55. Georg Graf, *Die Schriften des Jaobiten Ḥabīb ibn Ḥidmah Abū Rāʾīṭa*, CSCO 130-131 (Louvain: Peeters, 1951).

장은 그가 당시 무슬림 신학자(무타칼리문) 사이에서 논쟁되는 주제를 잘 알고 있었으며, 이러한 논쟁의 언어를 활용하여 기독교의 가르침을 변증하고 추천한다는 것이다. 당시 이라크에서는 하나님을 아랍어로 서술하는 의미에 대해서 기독교 학자와 무슬림 학자 간의 대화적이고 변증법적 관계가 존재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아부 라이타는 이러한 논의에 관심을 두었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활용했다.⁵⁶

암마르 알 바스리의 기독교에 대한 변증은 『증거본문의 책』(*Kitāb al-burhān*)이라는 제목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꾸란이 다른 종교 공동체들에 대해 증거를 제시하라는 요구(2:111 등)와 관련된다. 또한 암마르는 『질문과 답변의 책』이라는 보다 상세한 논문을 써서 기독교인과 무슬림의 논쟁 주제들을 폭넓게 다뤘다.⁵⁷ 암마르는 무슬림의 일람 알 칼람 세계에 정통했으며, 무슬림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주제들을 활용하여, 기독교 교리를 변호하는 논증을 제시했다. 더 나아가서 이 저작은 제목이 가리키듯 4개의 주제 하에 배열된 일련의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질문과 대답은 테오도로스 바르 코니의 『스콜리온』과 같이 스승과 제자의 대화 형식으로 제시되지 않고, 이슬람 칼람 문헌에서 나타나는 조건문 형식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누가 이러한 것을 말하거나 물으면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는 형식으로, 질문은 문장의 조건절(*protasis*)이고 대답은 귀결절(*apodosis*)로 구성된다. 이는 암마르가 상대자의 견해를 자기당착에 이르게 하는 일련의 체계로 기독교의 교리를 방어하고 자신의 논증을 전개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그는 이슬람의 일람 알 칼람에 정통한 지성인과 이슬람의 논증에 의해 설득당할 수 있는 아랍어를 말하는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고 증명하고자 노력했다.

테오도로스 아부 꾸라의 저작으로 알려졌지만 현재는 익명의 저자가 850년부터 870년 사이에 저술했다고 여겨지는 이른바 『아랍어 신학대전』(*Summa Theologica Arabica*)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총체적인 진술을 제시한다. 이 책은 모두 25장으로

56. Griffith, “Ḥabīb ibn Ḥidmah Abū Rā’īṭa, a Christian *muttakallim* of the First Abbasid Century”, *Oriens Christianus* 69 (1985), 126–67.

57. 텍스트로는 Michel Hayek, *‘Ammār al-Baṣrī; apologie et controverses* (Beirut: Dar el-Mechreq, 1977); Griffith, “Ammār al-Baṣrī’s *Kitāb al-burhān*: Christian Kalām in the First Abbasid Century”, *Le Muséon* 96 (1983), 145–181.

이루어져 있으며 다루는 주제의 폭과 철저함에서 당대의 모든 변증서를 넘어선다. 이 책의 특징 중 하나는 당대의 논쟁에서 제기되는 주제들을 다루는 장들이 있다는 점이다. 다른 장과는 달리 유일하게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쓰인 제18장은 무슬림이 종교에 대한 일상적인 논증에서 흔히 도전하는 질문에 대한 간편한 답변을 제공한다. 제19장은 기독교가 아브라함, 더 나아가서는 아담의 참 종교라는 것을 증명한다. 다음 세 장(제20-22장)은 구속사에서 유대인의 위치를 다루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모든 약속의 상속자가 이방인이라고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아랍어 신학대전』은 이슬람의 종교적 어휘와 표현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는 저자가 꾸란이 기독교인에 대해 제시하는 도전에 대한 응답의 틀 안에서 변증 작업을 수행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⁵⁸

압바스 시대의 그리스 서적 번역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아부 꾸라, 아부 라이타, 암마르와 동시대에 활동한 후나인 이븐 이삭(808-873)도 기독교를 변증하는 글을 남겼다. 후나인이 명백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자신의 반론을 입증하는 논증을 거부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자, 후나인의 무슬림 친구 알리 이븐 야흐야 알-무나짐(888년 사망)은 무함마드가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라는 것을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화적인 형식을 갖추어 논증하면서 『증거 본문』(*al-burhān*)이라고 제목을 붙인 공식적인 서한(*risālah*)을 보냈다. 여기서 그는 후나인이 합리적인 자이므로 이슬람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후나인은 이에 대해 응답하며, 알 무나짐의 삼단논법의 형식적이고 실질적인 오류를 지적하고 기독교가 참 종교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제시한다. 한 세대 후에 황제파 쿠스타 이븐 루까(약 830-912년)는 또 다른 편지로 알 무나짐의 논증에 반박했다. 여기서 그는 꾸란이 모방될 수 없으므로 꾸란의 진실성이 입증된다는 무슬림의 주장을 비판했다. 알 무나짐과 후나인 이븐 이삭과 쿠스타 이븐 루까의 작품은 후대에 한데 모아져서 아랍 기독교에서 널리 읽혀졌다.⁵⁹

58. Griffith, "A Ninth Century Summan Theologicae Arabica", in *Actes du Deuxième Congrès International d'Études Arabes Chrétiennes (Oosterhesseln, septembre 1984)*, ed. S. K. Samir, *Orientalia Christiana Analecta* 226 (Rome: Pontificio Instituto degli Studii Orientali, 1986), 123-41.

59. Paul Nwyia and Samir Khalil Samir, *Une correspondance islamo-chrétienne entre Ibn al-Munağğim, Hunayn Ibn Ishāq et Qusta ibn Lūqā*, *Parologia Orientalia* no. 185, vol. 40/4 (Paris: Brepols, 1981).

압바스 시대에 나온 또 하나의 유명한 변증서는 압드 알 마시흐 이븐 이삭 알 킨디라는 이름으로 전해진다. 이는 압드 알라 이븐 이스마일 알 하시미라는 무슬림의 편지에 대해 기독교인 알 킨디가 답변하는 편지 형식으로 씌어졌다. 압드 알라의 편지는 이슬람 신앙고백(샤하다)과 다섯 기둥에 대한 요약이다. 알 킨디는 기독교 가르침과 관행을 길게 변호하며, 꾸란과 무함마드와 이슬람의 가르침과 관행을 논박한다. 알 킨디의 변증의 특징은 초기 압바스 왕조의 다른 시리아어, 아랍어 변증서와는 달리 비잔티움의 이슬람 논박 문헌과 비슷한 어조로 꾸란과 예언자 무함마드를 폄하한다는 것이다. 이 두 편지는 하나의 작품으로 출판되었으며, 존자 페트루스 시대에는 스페인에서 라틴어로 번역되었다.⁶⁰

시리아 문헌과는 달리 아랍어 변증서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무슬림, 심지어 유대인까지도 읽을 수 있었다. 아랍어 변증서의 서론적인 언명을 고려할 때, 상대방은 일차적으로 기독교인을 염두에 두고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일부 아랍 기독교 문헌은 무슬림 독자를 가지고 있었고 무슬림 저자의 반응을 이끌어내었다. 현존하는 최초의 무슬림의 기독교 논박서는 알 까심 이븐 이브라힘 알 하사니 알 라씨(860년 사망)가 825년에 저술한 책이다. 9세기 중엽에는 여러 무슬림 학자들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책을 저술했는데, 이는 기독교 논박 문헌이 이 시대 이슬람의 신학 담론의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한 기독교 저자를 이름을 들어 논박하는 저작도 나왔다. 예를 들면 이븐 수바이흐 알 무르다르(840년 사망)는 테오도로스 아부 꾸라를 비판하는 논문을 썼고, 아부 후드하일 알 알라프(840년경 사망)는 암마르의 이름을 들며 기독교 논박서를 저술했다. 이러한 무슬림의 기독교에 대한 대응은 별도의 논문으로 고찰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아랍 기독교 신학자 이외에도 야흐야 이븐 아디(974년 사망), 알렉산드리아의 에우티키오스(940년 사망), 이븐 앓 파이브(1043년 사망), 니시비스의 엘리야(1049년경 사망)나 세베로스 이븐 알 무카파(1000년경 사망)와 같은 많은 아랍어 저술가가 있지만, 본고에서 다룬 압바스 왕조 초기의 기독교인과 무슬림의 변증과 논쟁의 문헌들은 이후의 이슬람과 기독교의 만남과 교류와 관련된 기본적인 틀과

60. 본서의 저작 연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이는 아부 라이타의 논문과 알-비루니의 고대 국가의 연대기(1050년 경 사망) 사이에 씌어졌다.

주제와 형식을 규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 아랍 기독교 저자는 이미 이슬람화된 아랍어를 채택하고 이슬람 학문의 방법과 용어를 사용하여 기독교를 변증했다. 이런 의미에서 아랍 기독교 변증서는 흥미로운 토착화의 사례를 제시해준다. 9세기부터 비무슬림의 이슬람으로의 개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압바스 시대의 목시문학, 시리아어와 아랍어 변증서, 성경의 번역, 아랍어 신학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기독교인의 대응은 무슬림의 지적 도전과 신자들의 개종 유혹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기독교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기독교가 참 종교라는 것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3. 번역 운동과 철학적 대화

이슬람 세계 안의 기독교인이 당대의 무슬림 논객과 대화와 논쟁을 하며 기독교를 변증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 철학서와 과학서 번역 및 철학 사상의 발전에도 적극 참여했다는 것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알 킨디, 알 파라비, 이븐 시나, 이븐 투파일과 같은 이슬람 철학자, 또한 사아디아 베 요세프 가운, 예후다 하 레비, 아브라함 이븐 에즈라, 모세 마이모니데스와 같은 유대인 철학자의 이름은 알려져 있지만, 후니인 이븐 이삭, 야흐야 이븐 아디와 같은 기독교 철학자의 이름은 전혀 생소하다. 이슬람 세계 안의 기독교와 이슬람의 만남과 교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8세기부터 10세기에 일어난 번역운동과 철학운동에 기독교인의 기여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⁶¹ 앞에서는 총감독 티마테오스 1세가 칼리파 알 마흐디의 부탁을 받아 아리스토텔레스의 『토피카』를 번역했으며, 최초의 아랍어 신학자로 일컬어지는 테오도로스 아부 꾸라가 칼리파 알맘문의 코라산 출신 유명한 장군 타히르 이븐 알 후사인을 위해 위-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의 덕에 대하여』를 번역했다는 사실이 언급되었다. 이렇게 압바스 시대의 아랍어 신학자가 이슬람에 대한 기독교 변증뿐만 아니라 번역운동에 공헌했다는 것을 기

61. Dimitri Gutas, *Greek Thought, Arabic Culture: The Graeco-Arabic Translation Movement in Baghdad and Early 'Abbāsid Society (2nd-4th/8th-10th Centuri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8).

역할 필요가 있다.⁶²

우선 이슬람 세계 안에서 그리스 서적의 번역과 철학의 발전은 이슬람 태동 이전의 시리아 교회의 번역 운동과 철학에 대한 관심과 연결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⁶³ 4세기에 이르면 기독교 지성인은 헬레니즘의 철학을 기독교 신학과 접목시켜 기독교 철학 혹은 그리스도의 철학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흐름에 대하여 5세기와 6세기에 이교 철학자들은 아테네와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독교를 배제하고 전통 종교를 옹호했으며, 529년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결국 아테네의 신플라톤주의 학원을 폐쇄하였다. 하지만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총감독과의 조정을 통해 신플라톤주의적 기관이 이슬람 시대까지 존속할 수 있었다. 여기서는 4세기의 기독교 철학자와 달리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을 강조하고 합리적으로 신적 계시의 진리 주장을 방어하고 종교적 주장 자체의 표현을 다듬는 학풍이 발전되었다. 알렉산드리아의 요안네스 필로포노스(약 490-약 570)는 이러한 학풍을 잘 보여준다.⁶⁴ 이러한 철학과 논리학에 대한 관심은 요안네스 필로포노스의 제자였던 레사이나의 세르기오스를 통해 시리아 교회와 연결되었으며, 세르기오스부터 이슬람 시대의 야흐야 이븐 아디에 이르기까지 400년 동안 에데사 근처에서 서시리아 철학자들의 고리를 발견할 수 있다.⁶⁵ 동시리아 교회에서는 페르시아인 파울로스(531-78년 활동)가 알렉산드리아와 직접적인 연결점을 제공해주지만, 서시리아 교회의 철학 전통보다는 연결고리를 찾기 어렵다. 그렇지만 총감독 티마테오스에게 볼 수 있듯이 동시리아인의 아리스토텔레스와 그리스 학문에 대한 열정은 서시리아인 못지않았다.

철학 연구의 첫 단계는 그리스 사상가의 저작의 번역 작업을 포함했다. 이는 그리스 성경과 신학 문헌을 번역하는 보다 큰 흐름과 연결되는데, 이러한 번역 작업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527-65 재위) 이후 제국의 정통 교리의 물리적인 강요에 맞서 시리아

62. Griffith, "Arab Christian Culture in the Early Abbasid Period", *Bulletin of the Royal Institute for Inter-Faith Studies* 1 (1999), 25-44.

63. Griffith (2008), 106-128.

64. H.-D. Saffrey, "Le chrétien Jean Philopon et la survivance de l'école d'Alexandrie au VI^e siècle", *Revue des Études Grecques* 67 (1954), 396-410.

65. 세베로스 세보크트(666/7년 사망), 발라드의 아타나시오스(696년 사망), 에데사의 야콥(633-708), 아랍족의 감독 게오르기오스(724년 사망), 에데사의 테오필로스(785년 사망).

교회 각 정파가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하려는 시도로 시작되었다. 시리아 교회 각 정파는 논쟁 대상이 되는 기독교적 표현과 용어를 철학적이며 개념적으로 분명하게 정의하려는 노력에서 그리스 학문과 철학에 관심을 두었다.⁶⁶

9세기 초부터 바그라드의 칼리파 궁정에서 무슬림 지식인의 그리스 철학과 과학에 대한 관심도 이와 연관시켜 이해할 수 있다. 아브 유수프 야쿰 이븐 알 킨디(806-866)와 같은 무슬림 사상가들은 이성적 활동의 추구를 이슬람에 이바지하는 활동으로 변호하고자 했다면, 후나인 이븐 이삭(808-873)과 야흐야 이븐 아디(893-974)와 같은 기독교 철학자는 철학으로 기독교 신앙을 수호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정파(“야쿰파”와 “네스토리오스파”)의 기독교론을 변증하려고 했다.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6세기로부터 시작한 그리스어에서 시리아어로, 그 다음에는 아랍어로 본문을 번역하려는 흐름 배후에는 신앙고백, 교회적 정체성을 분명히 표현하고 방어하려는 관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9세기에 이르면 바그다드의 기독교와 이슬람 철학자는 철학적 삶을 종교 간의 공존을 위한 모델로 추천했다. 철학자들은 이론적인 아랍어 문법 규칙을 기초로 하여 사상을 전개한 무타칼리문을 비판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매개로 철학의 길을 추구했다. 이를테면 그리스 서적의 번역으로 유명한 후나인 이븐 이삭은 철학이 제공하는 도덕적 통찰로 일상생활과 사회정책을 이끌기 위해 고대 현인과 철학자와 관련된 언행과 일화를 수집했다. 그에게는 철학이 신적 계시의 신빙성을 증명하는 수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이기도 했다.⁶⁷

10세기에 활동한 야흐야 이븐 아디는 바그다드 철학자 집단의 중심인물이었다. 그는 논리학과 철학 저서를 찾아다니고 필사하고 번역할 뿐만 아니라 논리학, 철학, 신학과 관련된 저작을 남겼다. 알 킨디와 알 파라비와 같은 무슬림 철학자가 신앙과 이

66. Sebastian P. Brock, “From Antagonism to Assimilation: Syriac Attitudes to Greek Learning”, in *East of Byzantium: Syria and Armenia in the Formative Period*, ed., Nina Garsoian et al. Dumbarton Oaks Symposium 1980 (Washington, DC: Dumbarton Oaks, 1982), 17-34.

67. Abdurrahman Badawi, ed., *Hunain ibn ishaq: Âdâb al-Falâsifa (Sentences des Philosophes)* (Safat, Kuwait: Éditions de l'Institut des Manuscrits Arabes, 1985; Fuat Sezgin, ed., *Hunain ibn ishaq: Texts and Studies*, Islamic Philosophy 17 (Frankfurt: Institute for the History of Arabic: Islamic Science at the Johann Wolfgang Goethe University, 1999).

성의 관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면, 야흐야 이븐 아디는 양자가 모순적이라고 이해하지 않고 삼위일체와 성육신, 더 나아가서는 시리아 정교회의 교리적 입장을 방어하기 위해 철학을 활용했다. 이는 무슬림 철학자와는 달리 기독교인들은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을 보조학문으로 활용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야흐야 이븐 아디는 후나인 이븐 이삭처럼 종교적 확신을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의 언어로 제시했다. 그는 무슬림 무타칼리문의 방법보다는 철학자의 범주들이 자신의 종교적이고 변증적인 목적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다.⁶⁸

야흐야 이븐 아디는 철학 저작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학과 변증서도 다수 저술했다. 그의 관심은 공공 도덕, 성적 금욕과 철학적 삶, 행복의 추구하고 슬픔의 문제에까지 미쳤지만, 성육신론, 삼위일체론, “야콥과”적 기독교론 방어를 주력했다.⁶⁹ 그의 변증서는 매우 효과적이어서 후대의 기독교 변증가는 교리적 주제들에 대해 글들을 수집·편찬할 때 야흐야 이븐 아디의 글을 많이 발췌했다. 또한 그는 후나인 이븐 이삭과 같이 마음의 수양과 철학적 삶의 추구가 기독교인과 무슬림이 참여할 수 있는 공통 담론의 영역을 발전시키는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도덕의 개혁』이란 저서에서 그는 인간은 한 종족이며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성적 혼이 인간 모두에게, 각 사람 안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참된 지식과 경건한 지혜가 완전한 인간이 되는 길ियो 하나님께 가가는 길이라고 제시한다.⁷⁰

아랍 기독교 번역자와 철학자는 이슬람 세계 안의 기독교와 이슬람의 만남과 교류의 또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 기독교인은 이슬람 문명 창조에 기여했으며, 무슬림과 함께

68. Gerhard Endress, *The Works of Yahyā ibn 'Adī: An Analytical Inventory* (Wiesbaden: Dr. Ludwig Reichert Verlag, 1977); Samir Khalil Samir, “Yahyā ibn 'Adī”, *Bulletin d'Arabe Chrétien* 3 (1979), 45–63; 야흐야 이븐 아디의 철학서는 Sahban Khalifat, *Yahyā ibn 'Adī: The Philosophical Treatises; A Critical Edition with an Introduction* [Arabic] (Amman: University of Jordan, 1988).

69. Emilio Platti, *Yahyā ibn 'Adī, philosophe chrétien et philosophe arabe: Sa théologie de l'incarnation*, *Orientalia Lovaniensia Analecta* 14 (Leuven: Katholike Universiteit Leuven, Department Orientalistiek, 1983); *La grande polémique antinestorienne (et la discussion avec Muḥammad al-Misrī)*, CSCO 427–28 (Louvain: Peeters, 1981); *Abu 'Īsā al-Warrāq, Yahyā ibn 'Adī: de l'Incarnation*, CSCO 490–491 (Louvain: Peeters, 1987).

70. Griffith ed. & tr., *Yahyā ibn 'Adī: The Reformation of Morals*, *Eastern Christian Texts* 1 (Provo, Utah: Brigham Young University Press, 2002).

철학적 개념과 범주를 사용하여 종교적 확신을 제시했다. 더 나아가서 후나인 이븐 이삭, 야흐야 이븐 아디는 철학을 매개로 하여 종교 간의 차이를 넘어서는 보편 인간성에 기초한 삶의 길을 제시했다.

V. 나가는 말 - 역사 신학적 통찰

지금까지 압바스 시대 초기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 세계 안에 있는 기독교인의 이슬람에 대한 대응을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꾸란의 기독교 비판, 담미 제도, 칼리파의 개종 장려 정책, 이슬람 학문의 발달이라는 역사적 조건 속에서 이슬람 문명권 안의 기독교인들은 무슬림의 교리적인 비판에 기독교 신앙을 수호하고, 교인들의 개종을 저지하고자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했다. 그들은 그리스어와 시리아어로 묵시문학과 변증서를 저술했고, 아랍어를 교회 언어로 채택하고, 성경과 교회 서적을 번역하며 독창적인 신학을 전개하면서 아랍 기독교를 발전시킨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그리스 서적의 아랍어 번역에 참여하고 이슬람 철학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필자는 이런 역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만 해도 이슬람과 기독교의 만남과 교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이슬람 세계 안에서는 로마 제국처럼 기독교인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는 없었으며, 기독교인은 경전의 백성이라 꾸란의 규정과 담미 제도 안에서 일정한 차별과 제한을 감수하며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었다. 이슬람 세계 안에서는 기독교인과 무슬림(또한 유대인)이 자신의 종교적 확신에 대해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할 수 있었으며, 기독교인이 무슬림과 함께 협력해서 그리스 서적의 번역, 철학적 삶의 계발을 특징으로 하는 이슬람 문명 창조에 기여했다는 것은 오늘날 이슬람과 기독교의 관계를 재조명할 수 있는 역사적 자료를 제공해준다. 비잔티움과 라틴 세계와는 달리 이슬람 세계의 기독교인은 꾸란과 무함마드, 이슬람 신학을 일방적으로 폄하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학문적으로 무슬림의 주장을 비판하고, 기독교 신앙을 방어하고 변증했는데, 이는 이슬람 세계 안의 기독교와 이슬람의 만남과 교류의 중요한 특징이다. 물론 압바스 시대의 기독교인과 무슬림이 진정한 의미의 대화에 참여했는지, 또한 아랍어 신학을 발전시켜

이슬람 세계의 공적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굳건히 하고 더 나아가서 무슬림에게 영향을 주었는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적어도 이슬람 세계 안에서 이슬람과 기독교의 만남과 교류가 상호 인정과 관용 속에서 이성적 사고와 논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고, 심지어는 철학적 삶을 발전시켜 종교 간의 차이를 넘어서서 인류의 보편적인 길을 제시하려는 시도도 존재했다는 것은 앞으로 기독교와 이슬람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또한 아랍 기독교는 토착화의 흥미로운 사례를 제공해준다. 압바스 시대에 기독교가 아랍어를 공용어로 채택했을 때, 이는 이미 이슬람화된 아랍어였다. 또한 아랍 기독교인들은 꾸란의 용어와 표현을 직접 인용하여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기도 했고, 이슬람의 시라 문학에서 발전된 예언자의 참 표지와 참 종교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고, 이슬람 칼람 문헌의 형식과 내용을 받아들여 기독교 신학을 전개했다.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슬람의 시라 문학이나 칼람 문헌은 이슬람이 아직 다수의 종교가 되지 못한 “종교적 환경” 속에서 무슬림 지성인이 기독교와 유대교의 영향 속에 발전시킨 형태라는 점이다. 일단 완전한 형태가 갖춰졌을 때, 시라 문학이나 칼람 문헌은 이슬람 고유의 특징을 지녔으며, 이제는 기독교인과 유대인이 이러한 형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종교적 신앙을 변증하고 논증했다. 이러한 점에서 아랍 기독교는 비잔티움이나 라틴 세계와는 다른 고유한 신학적 사고와 표현을 발전시켰으며, 이러한 신학을 비잔티움과 라틴 세계의 신학적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판단해서는 곤란하다.

이슬람 세계 안의 아랍 기독교는 삼위일체와 성육신을 굳게 고수하면서도 이슬람의 용어와 학문 방식을 차용하고 이슬람 문명의 발전에도 적극 동참하였다. 이슬람 세계와 달리 그 영향력이 미미했지만 당나라 경교에서도 이와 비슷한 토착화 과정을 볼 수 있으며, 양자가 모두 시리아 기독교라는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기독교의 첫 장으로서 시리아 기독교는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 아시아 토양과 문화에 기독교를 심으려했던 선교 역사의 소중한 유산을 남겨주었으며, 이는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후기식민지시대의 아시아 선교와 아시아 교회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 REFERENCES CITED

- Badawi, Abdurrahman ed. *Hunain ibn isḥāq: Ādāb al-Falāsifa (Sentences des Philosophes)*. Safat, Kuwait: Éditions de l'Institut des Manuscrits Arabes, 1985.
- Bidawid, Raphael. *Les lettres du patriarche nestorien Timothée*. Studi e Testi 187. Vatican City: Biblioteca Apostolica Vaticana, 1956.
- Braun, Oscar ed., *Timothei Patriarchae I: Epistulae*. Corpus Scriptorum Christianorum Orientalium (=CSCO), pp 74–75. Louvain: Secrétariat du CorpusSCO, 1953 and 1915.
- Brock, Sebastian P. "From Antagonism to Assimilation: Syriac Attitudes to Greek Learning." In Nina Garsoïan et al. eds., *East of Byzantium: Syria and Armenia in the Formative Period*. Dumbarton Oaks Symposium 1980, pp. 17–34. Washington, DC: Dumbarton Oaks, 1982.
- _____. tr. "North Mesopotamia in the Late Seventh Century. Book XV of John Bar Penkāyē's *Rīš Mellē*", *Jerusalem Studies in Arabic and Islam* 9 (1987), p. 72.
- Bulliet, Richard W. *Conversion to Islam in the Medieval Period: An Essay in Quantitative Histo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9.
- Cheikho, Louis. *Dialectique du langage sur Dieu de Timothée I(728–823) à Serge*. Rome: Institutum Studiorum Orientalium, 1983.
- De Blois, F. "Naṣrānī (nazwraioj) and ḥanī (eqnikoj): Studies on the Religious Vocabulary of Christianity and Islam", *Bulletin of the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65 (2002), pp. 1–30.
- Dragon, "Juifs et Chrétiens", *TM* 11 (1991), pp. 38–43.
- Drijvers, H. J. W. "The Gospel of the Twelve Apostles: A Syriac Apocalypse from the Early Islamic Period." In Averil Cameron and Lawrence I Conrad eds., *Byzantine and Early Islamic Near East I: Problems in the Literary Source Material*. Studies in Late Antiquity and Early Islam 1, pp. 189–213. Princeton: Darwin Press, 1992.
- Endress, Gerhard. *The Works of Yaḥyā ibn 'Adī; An Analytical Inventory*. Wiesbaden: Dr. Ludwig Reichert Verlag, 1977.
- Fattal, Antoine. *Le statut légal des non-musulmans en pays d'Islam*. Beirut: Imprimerie Catholique, 1958.
- Gardet, L. "ilm al-Kalām." S.v. *Encyclopaedia of Islam: New Edition*. Vol. 3, pp. 1141–

1150. Leiden: Brill, 1986.
- Gibson, Margaret Dunlop. *An Arabic Version of the Acts of the Apostles and the Seven Catholic Epistles, with a Treatise on the Triune Nature of God*, Studia Sinaitica 7, pp. 74–107(아랍어), pp. 2–36(영어). London: C. J. Clay and Sons, 1899.
- Graf, Georg. *Die Schriften des Jaobiten Ḥabīb ibn Ḥidmah Abū Rā'īṭa*. CSCO 130–131. Louvain: Peteers, 1951.
- Griffith, Sidney H. “Ammār al-Baṣrī’s *Kitāb al-burhān*: Christian *Kalām* in the First Abbasid Century”, *Le Muséon* 96 (1983), pp. 145–181.
- _____. “Anastasios of Sinai, the *Hodegos* and the Muslims,” *Greek Orthodox Theological Review* 32 (1987), pp. 341–58.
- _____. “Arab Christian Culture in the Early Abbasid Period”, *Bulletin of the Royal Institute for Inter-Faith Studies* 1 (1999), pp. 25–44.
- _____. “Chapter Ten of the Scholion: Theodoe bar Kônī’s Apology for Christianity”, *Orientalia Christiana Analecta* 218 (1982), pp. 169–91.
- _____. *The Church in the Shadow of the Mosque: Christians and Muslims in the World of Isla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8.
- _____. “Disputes with Muslims in Syriac Christian Texts: From Patriarch John (d. 648) to Bar Hebraeus (d. 1286).” In B. Lewis and F. Niewöhner eds., *Religionsgespräche im Mittelalter*. Wolfenbütteler Mittelalter–Studien 4, pp. 251–273. Wiesbaden: Harrassowitz, 1992.
- _____. “Disputing with Islam in Syriac: The Case of the Monk of Bêt Ḥālê with a Muslim Emir,” *Hugoye* 3.1 (January, 2000), <http://Syrcom.cua.edu/Hugoye/Vol3No1/HV3N1/Griffith.html>.
- _____. “Faith and Reason in Christian *Kalām*: Theodore Abū Qurrah on Discerning the True Religion.” In S. Kh. Samir and J. S. Nielsen eds., *Christian Arabic Apologetics during the Abbasid Period (750–1258)*, pp. 1–43. Leiden: Brill, 1994.
- _____. “Free Will in Christian *Kalām*: Moshe bar Kepha against the Teachings of the Muslims”. *Le Muséon* 100 (1987), pp. 143–159.
- _____. “From Aramaic to Arabic: The Languages of the Monasteries of Palestine in the Byzantine and Early Islamic Periods”, *Dumbarton Oaks Papers* 51 (1997), pp. 11–31.
- _____. “Ḥabīb ibn Ḥidmah Abū Rā'īṭa, a Christian *muttakallim* of the First Abbasid Century”, *Oriens Christianus* 69 (1985), pp. 126–67.

- _____. "The Gospel in Arabic: An Inquiry into Its Appearance in the First Abbasid Century", *Oriens Christianus* 69 (1985), pp. 126–67.
- _____. "Jews and Muslims in Christian Syriac and Arabic Texts of the Ninth Century", *Jewish History* 3 (1988), pp. 65–94.
- _____. "The Monks of Palestine and the Growth of Christian Literature in Arabic", *The Muslim World* 78/1 (January 1988), pp. 1–28.
- _____. "Muḥammad and the Monk Baḥîrâ: Reflections on a Syriac and Arabic Text from Early Abbasid Times", *Oriens Christianus* 79 (1995), pp. 146–74.
- _____. "A Ninth Century *Summan Theologicae Arabica*." In S. K. Samir ed., *Actes du Deuxième Congrès International d'Études Arabes Chrétiennes (Oosterhesseln, septembre 1984)*, ed. Orientalia Christiana Analecta 226, pp. 123–41. Rome: Pontificio Istituto degli Studii Orientali, 1986.
- _____. *Theodore Abū Qurrah: The Intellectual Profile of an Arab Christian Writer of the First Abbasid Century*. [Tel Aviv]: Tel Aviv University, 1992.
- _____. "Theodore bar Kônî's Scholion: A Nestorian *Summan contra Gentiles* from the First Abbasid Century." In N. Garsoïan, T. Matthews, and R. Thomson eds., *East of Byzantium: Syria and Armenia in the Formative Period*, pp. 53–72. Washington, DC: Dumbarton Oaks, 1982.
- _____. trans., *A Treatise on the Veneration of the Holy Icons Written in Arabic by Theodore Abū Qurrah, Bishop of Harrân c. 755–c. 800 A.D.*. Eastern Christian Texts in Translation 1. Leuven, Peeters, 1997.
- _____. ed. & tr. *Yaḥyā ibn 'Adī; The Reformation of Morals*. Eastern Christian Texts 1. Provo, Utah: Brigham Young University Press, 2002.
- Gutas, Dimitri. *Greek Thought, Arabic Culture: The Graeco-Arabic Translation Movement in Baghdad and Early 'Abbāsīd Society (2nd–4th/8th–10th Centuri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8.
- Hainthaler, Theresia. *Christliche Araber vor dem Islam: Verbreitung und Konfessionelle Zugehörigkeit: Eine Hinführung*. Leuven–Paris–Dudley, MA: Peeters, 2007.
- Hava Lazarus-Yafeh, "taḥrīf." S.v. *The Encyclopaedia of Islam: New Edition* 10. Leiden: Brill, 2000.
- Hayek, Michel. *'Ammār al-Baṣrī; apologie et controverses*. Beirut: Dar el-Mechreq, 1977.

- Jackson-McCabe, Matt ed. *Jewish Christianity Reconsidered: Rethinking Ancient Groups and Texts*. Minneapolis: Fortress, 2007.
- Kedar, Benjamin Z. *Crusade and Mission: European Approaches toward the Muslim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 Khalifat, Sahban. *Yaḥyā ibn 'Adī: The Philosophical Treatises; A Critical Edition with an Introduction* [Arabic]. Amman: University of Jordan, 1988.
- Le Coz, Raymond ed. *Jean Damascène: Écrits sur Islam*. Sources Chrétiens 383. Paris: Cerf, 1992.
- Mandelung, W. "Abdallāh b. Zubayr and the Mahdī", *Journal of Near Eastern Studies* 40 (1981), pp. 291-305.
- _____. "Apocalyptic Prophecies in Ḥims in the Umayyad Age", *JSS* 31 (1986), pp. 141-86.
- Martinez, Francisco Javier. "The Apocalyptic Genre in Syriac: The World of Pseudo-Methodius." In H. J. W. Drijvers et al. eds., *IV Symposium Syriacum 1984: Literary Genres in Syriac Literature (Groningen -- Oosterhesselen 10-12 September)*, pp. 337-352. Roma: Pont. Institutum Studiorum Orientalium, 1987.
- Meyendorff, John. "Byzantine Views of Islam", *Dumbarton Oaks Papers* 18, (1964), pp. 115-132.
- Mingana, Alphonse. ed. & tr. *Sources syriaques*. Leiden, 1907. p. 165/192-3;
- _____. *Woodbrooke Studies: Christian Documents in Syriac, Arabic and Garshūni; Edited and Translated with a Critical Apparatus*, vol. 2, pp. 1-162 Cambridge: Heffer, 1928.
- Nau, F. "Un colloque du patriarche Jean avec l'émir des Agaréens", *Journal Asiatique*, 11/5 (1915), pp. 225-79.
- Nwyia, Paul and Samir Khalil Samir. *Une correspondance islamo-chrétienne entre Ibn al-Munaḡḡim, Ḥunayn Ibn Ishāq et Qusta ibn Lūqā*. Parologia Orientalia no. 185, vol. 40/4. Paris: Brepols, 1981.
- Platti, Emilio. *Abu 'Īsā al-Warrāq, Yaḥyā ibn 'Adī; de l'Incarnation*. CSCO 490-491. Louvain: Peeters, 1987.
- _____. *La grande polémique antinestorienne (et la discussion avec Muḥammad al-Misrī)*. CSCO 427-28. Louvain: Peeters, 1981.

- _____. *Yahyā ibn 'Adī, philosophe chrétien et philosophe arabe: Sa théologie de l'incarnation*. Orientalia Lovaniensia Analecta 14. Leuven: Katholieke Universiteit Leuven, Department Orientalistiek, 1983.
- Pritz, Ray A. *Nazarene Jewish Christianity: From the End of the New Testament Period until Its Disappearance in the Fourth Century*. Jerusalem: Magness Press and Leiden: Brill, 1988.
- Raven, W. "sīrah." S.v. *Encyclopaedia of Islam: New Edition*. Vol. 9, pp. 660–663. Leiden: Brill, 1997.
- Reinink, Gerrit J. "The Beginnings of Syriac Apologetic Literature in Response to Islam", *Oriens Christianus* 77 (1993): pp. 167–87;
- _____. "Pseudo-Methodius und die Legende von römischen Endkaiser", in *The Byzantine and Early Islamic Near East I: Problems in the Literary Source Material*, ed. Avril Cameron and Lawrence I Conrad. Princeton: Darwin Press, 1992, pp. 149–87.
- _____. *Die syrische Apokalypse des Pseudo-Methodios*. CSCO, pp. 540–541. Louvain: Peeters, 1993.
- Roey, A. Van. *Nonnus de Nisibe; traité apologétique*. Bibliothèque du Muséon 21. Louvain, 1948.
- Roggema, Babara. "A Christian Reading of Qur'an: The Legend of Sergius-BaBahīrā and Its Use of the Qur'an and Sīra." In David Thomans ed., *Syrian Christians under Islam: The First Thousand Years*, pp. 57–73. Leiden: Brill, 2001.
- Rubin, Uri. *The Eye of the Beholder: The Life of Muḥammad as Viewed by the Early Muslims: a Textual Analysis*. Studies in Late Antiquity and Early Islam 5. Princeton: Darwin Press, 1995.
- Saffrey, H.-D. "Le chrétien Jean Philopon et la survivance de l'école d'Alexandrie au Vie siècle", *Revue des Études Grecques* 67 (1954), pp. 396–410.
- Sahas, Daniel J. *John of Damascus on Islam: The "Heresy of the Ismaelites"*. Leiden: Brill, 1972.
- Samir, Samir Khalil. "The Earliest Arab Apology for Christianity (c. 750)." In Samir Khalil Samir and Jørgen S. Nielson eds., *Christian Arabic Apologies during the Abbasid Period (750–1258)*, pp. 57–114. Leiden: Brill, 1994.
- Samir, Samir Khalil. "Yahyā ibn 'Adī", *Bulletin d'Arabe Chrétien* 3 (1979), pp. 45–63.
- Scher, Addai. *Theodorus bar Kōnī Liber Scholiorum*. CSCO, p. 55, p. 69. Paris: E Ty-

pographeo Republicae, 1910 and 1912.

Sezgin, Fuat ed. *Ḥunain ibn isḥāq: Texts and Studies*. Islamic Philosophy 17. Frankfurt: Institute for the History of Arabic: Islamic Science at the Johann Wolfgang Goethe University, 1999.

Southern, R. W. *Western Views of Islam in the Middle Ag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2.

Suermann, H. ed. & tr., *Die geschichtstheologischer Reaktion auf die einfallenden Muslime* [Frankfurt, 1985], pp. 12–33),

Trimingham, J. Spencer. *Christianity among the Arabs in Pre-Islamic Times*. London and New York: Longman, 1979.

Tritton, A. S. *The Caliphs and Their Non-Muslim Subjects: A Critical Study of the Covenant of 'Umar*.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30.

Wansbrough, J. *The Sectarian Milieu: Content and Composition of Islamic Salvation History*. London Oriental Series 34.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